



鄭雲燦총장 신년사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새 아침입니다. 오늘
따라 우리 교정의 잔설을
바추는 태양이 상서롭게
느껴집니다. 올해, 2006
년 丙戌年을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
시기를 빌겠습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저 개인에게
나, 우리 서울대학교에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금년으로 저는 총장직을 마감하
고,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취임사를 하던 때가 며칠 전 같은데,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어려
운 일,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큰 성과는 아닐지라도 노력의 결과는 조
금씩 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저의 생활신조와 함
께 무엇보다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총장이 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말씀드렸던 공약이나, 여러 교수님
들과 만나면서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고자 진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구성원의 다양화, 국제화 제도, 급여인
상, 총장실과 숙소와 교수아파트 개축 및 확대, 민주적 의사
결정절차의 마련, 예코랜드 조성, 발전기금 확보, 그리고
GSI 장학금제도 등의 실현은 단순한 공약의 실현이기에 앞서
제 소신에 대한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실천하며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율성 확
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 언론
사보다 서울대의 문제점을 앞다뎌 들춰내고, 심지어는 학교를
탄오라는 일부 여론까지 있었습니. 저는 그때마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만이 대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관된 행보를 내뒀습니.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바
로 제 임기동안 학교가 안정되고 구성원들간의 화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교처럼 개성 있는 구성
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혜롭게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문화가 성숙하고, 내부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화합
과 신뢰 없이는 발전도 개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우리 학교의 바탕직한 변화가 무라 없이 이루어질 수 있
었다면 데에는 모두 여러분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자
리를 빌려, 부족한 총장에게 변함 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서울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은 제가 공적·사적인 차원에서 약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
히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물론이려니와, 서울
대학교 법인화, 전문대학원 체제와 자유연공제의 도입 등 중
요한 사항들이 총련히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다음
총장께서 소신껏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거나 현 상황을 망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우리 자신과 우리 학
교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권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연연
하지 않고 보다 더 견고하고 내실 있는 서울대학교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
니다. (2면에 계속)

개교 60주년 맞은 丙戌年,



早春 <雨溪 李奎鮮 作>

<9면에 약력 소개>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
룸에서 각계 동문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은 폐교로
에 이른 논술고사 파동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모교에 집중된 한 해였으나 이러한 시대착오
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
고 일부의 시행착오는 자정능력을 통해 개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으며, 우리 서울
대인들이 더욱 통치고 단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장학혜생 건립 모금활동 2개월여 만
에 많은 동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정성스런
개 참여해주신 덕분에 현재 약 70여 억원이
모금 또는 약정됐다"고 말하고 "올해는 모교
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
로, 모든 행사들 '개교 60주년'을 주제로 더
욱 알차게 개최해 30만 동문들의 모교에 < >



100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기약하자

신년호 안내

1면이 두면입니다.
 펼쳐서 보십시오.



林光洙회장 신년사

사랑하는 서울대 동문과 가족 여러분!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30만 동문의 가정엔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뜻한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활기차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으로 점철된 신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저작년의 폐교론이 이은 논술고사 파동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모교에 집중되면서 모교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마음고생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서울대 동문들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 험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증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등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을 뿐 秀越性 교육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굳은 결의를 흔들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형착오는 자정능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보다 더 큰 수확은, 모래알 같았던 우리 서울대인들이 더욱 똘치고 단합하는 전화위부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모교 총장님과 교수님들께서 최고의 자정담당게 잘 대처해주시어 세계대학 순위는 93위로 상승했고 SCI 국제순위도 32위를 기록했으며 발전기금도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총동창회가 모교 폐교론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이란 적을 시의적절하게 발견함으로써 논술고사 시비에 대하여 모교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동창회 역시 서울대 가족 등산대회와 바둑대회, 골프대회 등 총동창회가 개최하는 행사 때마다 동문들께서 기대 이상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보내주셨으며, 동창회보도 특집 인터뷰, 전문가 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동문 인터뷰, 모교 소식 코너 등을 증보하면서 해외교포 자녀를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보를 기다리는 애독자가 되게 한 한 해였습니다.

경애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저는 모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모교를 지원하는 일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4~5%의 은행금리에 의존하는 장학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보전되는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학사업 방식을 바꾸기 위해 장학빌딩이란 명칭으로 동창회관을 건립해야겠다고 구상해왔습니다.

즉, 건립기금으로 내준 기금은 그분의 장학회를 설치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채고금리 이상으로 지급해드리고 그분이 선정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기금을 모아서 장학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창회관 자리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장학빌딩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본 설계에 이은 건축시행계획의 허가를 득하면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천만원 이상 출연하는 동문에게는 단순히 건립기금 이르기보다는 그분의 영구적인 장학회를 설립하여 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모교계획에 대해 많은 동문들께서 감 획적이었고 신선한 아이디어라며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소액 출연 동문들에게도 그 이름을 동관에 새겨서 동창회관 내의 명예의 전당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이 장학빌딩이 완성되면 지금의 4배, 연간 1천여 명에 대해 20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모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비도 18억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등산대회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한



장학빌딩 건립 모금활동 2개월여 만에 많은 동문들께서 정성스럽게 참여해주신 덕분에 현재 10억원 이상 출연해 주시거나 약정하신 동문이 일곱 분이여 이분들의 이외에도 몇 분 더 있기 때문에 모금 목표액 달성의 앞날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신 동문에게는 장학회 설립은 물론이고 그분이 원하는 한 개 층을 그들의 층으로 명명하고 그분의 흉상과 기록을 동관으로 부조하여 그분의 업적이 영원히 장학빌딩에 보존되도록 할 것입니다.

천애하는 동문 여러분, 서울대인들이 서서히 통치기 시작하는 분위기는 국내내외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지역 동문들의 초청으로

북경과 상해를 순방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많은 중국지역 동문들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울대이라는 정체성을 재삼 확인하게 되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동창회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는 일본지역 동문들을 방문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모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모든 행사를 '개교 60주년'을 주제로 더욱 알차게 개최해 30만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누가 조국을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총칙하고 웅장스러운 개의 해입니다.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인간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온 개는 집귀와 액운을 불러지 집안의 행복을 지켜주고 주인에게 헌신하는 충성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가정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여 그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는 서울대인이 됩시다. 모든 동문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교 總務處총장은 "지난 3년간 동안 우리 학교의 비약적인 변화가 두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총장에겐 변함 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서울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동안 모교 법인화, 전문대학원 체제와 자유전공학제의 도입 등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다음 총장께서 소신껏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및 직능단체·지방지부동창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차容鳳(상대)·鄭碩玉(성화대)·故 韓相宇(음대)·李吉女(의대)·申碩鉉(보대원)·金彥鎭(안대원)·金光雄(행대원)·金熙鎧(포항지부)·金正國(AMP)·吳元錫(SCS)·金方結(HPM)·朴奎相(AIC)·金鍾福(AFB)·朴秉南(AMPR)·金宋元(IIP)·尹炳熙(관악부역인회) 동문 등 1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권경자 다음호에 게재)

〈특별기고〉

대우주와 소우주 - 黃禹錫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病人이나 事故로 망가진 조작을 자기 자신의 세포로 다시 만들어 낸다. - 이 문과 같은 연구로 온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黃禹錫교수의 논문과 자료가 한순간에 날조되었다는 논평을 받았다. 해성처럼 나타나 국민적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黃교수는 어째서, 왜, 이런 큰 스캔들에 밀려들었을까.

우리는 그의 연구결과가 졸음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이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왔을 수많은 환자의 뜨거운 소망을 상상으로 베푼 감응과 기대를 가졌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난치병을 근 40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당대의 천재 이론 물리학자인 호킹(S. W. Hawking 1942~) 박사의 경우를 생각해



金在淳

본회 명예회장
셀터사 고문

보자. 黃박사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혹시 그의 병환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호킹 박사는 현재 얼굴의 오른쪽 볼로 함성울음을 내며 겨우 의사를 소통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에 짜증과 화가 폭발할 때가 없는지는 질문에 “시간의 낭비일 뿐이지요.” 라고 답했다. 남겨진 시간이 적은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말이다.

호킹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을 발전시킨 유력한 후계자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현대의 과학계는 호킹 박사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밀그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우주는 왜 시작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우주의 나이는 1백37억 살이라고 말하여 왔다. 이에 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야말로 눈 깜박할 순간이다. 우주에서 본다면 인류의 발명은 아주 작은 感應에 생긴 화학물질의 자음이 깨지는 정도다. 그러면서도 우리 손자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거대 우주에 대비하여 사람의 몸을 小宇宙라고도 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난치병 속에서도 1분 1초를 아껴가며 전력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는 호킹 박사와 생명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던 黃禹錫박사를 오버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 하는 일에는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다. 아무쪼록 대우주의 장정에 오른 호킹 박사처럼, 黃禹錫박사도 과오를 인정하고 백의종군하는 마음가짐으로 용기와 지력을 가다듬어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탐사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악출추

올해는 모교 서울대학교가 개교한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되는 셈이다. 원숙의 나이에 걸맞게 서울대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현저하게 발돋움하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서울대인들의 활

도 어찌면 1등이 갖는 자만과 오만의 산물인지 모른다.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직과 겸손, 두려움도 학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黃禹錫 사건이 엄청난 시련이고 고통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대와 서울대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계 일류대학으로 거듭나는 전화 위부의 계기로 삼는 용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좋은 인재를 끊임없이 길러내고 학문에 정진해 세계적인

언이 국내 대학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개선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순위도 경쟁에 의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보면 일등 유지라는 갈수록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대총동창회보가 오는 4월 30주년을 맞는다는 사실도 개교 60주년과 묘한 조합을 이루며 좋은 징조로 느껴진다. 최고의 대학에 걸맞는 동창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잠시 머문 대학을 영원히 느낄 수

개교 60주년에 다지는 각오와 바람

약삼도 감수룩 빛을 더하고 있다. 그릇된 평등주의와 하향 평준화 정서 등으로 1등의 대가를 적지 않게 치르고 있지만 학문에서, 교육에서 최고의 위치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아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상 1등이고 신망과 부름의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서울대와 서울대인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개교 이래 최악의 사건이 벌어 모르는 黃禹錫 사

논문들 많이 내놓는 것만이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서울대의 영광은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60년의 연륜을 발판으로 더 높은 지성과 학문,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새 60년의 비전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지난 세월에 비해 앞으로의 60년이 훨씬 어렵고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상황실정이 요구된다.

아이 서울대를 떠나보냈다는 공

있는 동창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2백여 명의 교수들은 ‘上天下澤’을 선정했다고 한다. 불은 위로 치솟고 물은 아래로 흘러버리듯 서로 반박하고 양극화되는 현국을 비유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는 좋은 뜻의 4자성어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대와 서울대인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개교 60년을 맞는 모교와 서울대인의 영원한 동지 동창회의 부강한 발전이 그 첫걸음이다. (龍)

(1면 創會總章장 신년사 계속)

최근의 크고 작은 불시착은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아니 됨을 통각했습니다. 저는 이 지면을 빌려 다시금 진정합니다. 이들 사건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유난히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큼니다. 우리 학교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 나아가 우리 나라의 발전 위해 대학이 지켜 나가야 할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보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론 우리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걸맞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도 더욱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

는 해입니다. 우리 학교가 건학한 지, 벌써 한 甲子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분발해, 세계 제일의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새로운 60년을 열어가도록 합시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신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록 개최 하오나 통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06년 3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① 제8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 사업계획 보고

③ 일일 개선

④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없음.

등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8차·관악회 95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새해를 열며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일을 성취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모양을 갖추게 됐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11위의 공업국이 됐다. 국제적인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국토의 분단과 참담한 나라를 겪으면서 이만한 업적을 성취했다는 것은 기적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냉정한 전후와 우를 살펴보자. 우리의 성취에는 한계가 많다.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었다. 나이는 먹고 몸집은 어른이 됐지만, 머리는 아직도 중학생 정도이다. 학력이 낮아서 어릴 보아도 성숙한 모양이 없다. 세계의 대국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해만 쫓아다니고 있다. 아침 저녁 반비 천리, 보수 진보, 성장 분배 등의 고식적인 구호에 매달리면서 네거티브·섬·게임(Negative-sum Game)에 여념이 없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인본 등이 나라는 전반적으로 일찍이 보지 못한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자난년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그만두자. '한강의 기적' 정도의 기적은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집착해 개발대대의 항수를 집착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세계와 국내의 대국을 보고, 경제의 대

를 찾아야 한다.

세계의 대국은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3~4백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21세기 세계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Globalization의 질서와 WTO는 그 원래의 취지와는 크게 달라져 있지만, 세계경제의 지역화, 자유화가 계속되면서 아시아의 대두는 계속될 것이다. 일본은 이 대세를 옛날로 돌리고자 애쓸 것이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이 대세에 적응하기에는 그 체질이 너무나 굳어 있어, 어떤 전지구적이지 않은 한,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유일의 超大國으로서, 그 막강한 무력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전파와 '자유'의 행진'의 추진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및 문화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선진지역의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인종간의 갈등, 종교간의 차이 등으로 정체성의 문제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가 갈아야 할 대로는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나라의 연명과 몸집에 부응하는 성숙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 조곤한 마음을 잡고, 한계면에 선진국이 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만도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릴 것이다. Globalization이라는 세계의 대세에 따르면, 그 부작음에 대처해야 한다. 경제면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정부와 업계가 이미 그 선택을 했다. 적극적으로 중국과 인도에 진출하고 아세안과 FTA를 맺는다고 했다. 기득권층은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하며, 정당이냐 근로자냐 무분별한 대도는 그만둬야 한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계면에 통일이 될 것을 바라서도 안 된다. 저쪽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일 만큼 그 체제와 이념이 신축적이지 않다. 우리는 모든 일에 좀더 성숙해야 한다.

大局을 보고 大道로 가자

趙 淳
모교 명예교수
민족문화추진회장



느리나무장

자난해 우리는 회담을 키우지 못한 채 丙戌年 새해를 맞이했다. 끝없는 정쟁 속에 여러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입문자처럼 계속 승진보를 보내는 전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정파는 물론이고 지역·세대간에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이 높아지니 우리 사회에 활력이나 윤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지아 '붉은 악마'는 각국의 응원모델로 연구대상이 됐다. 지난해 LPG를 누빈 한국의 여성들이나 메이저리그와 프리미어리그에서 속속 승진보를 보내는 전사들도 우리의 희망이다. 그들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목표에 도전하는 근성이 낳은 자랑스러운 세계적 상품들이다. 조선통신사 이래 최고의 문화충격이자는 일본의 반응만큼 우리의 한류는 그 파

국가의 명운을 '홍'으로 돌리자

이제 자난해 경험했던 우울한 상황을 펼쳐보고 그나마 우리의 삶과 정신을 유쾌하게 해줬던 성공신화들을 한 단계 더 승화시키는 데 전력 투구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성동하는 붉은 나라로 활기가 넘치고 신비한 나라 못할 것이 없다는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진지원 없는 최



林 炯 斗
SBS프로덕션 고문
본보 논설위원

민국에서 반세기만에 10대 외국역에 들어섰고, 세계적인 브랜드의 기업과 첨단기술의 제품을 탄생시킨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기업의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영국축구팀의 최고 팀인 '맨스' 선수의 유니폼에서도 우리 기업의 로고를 볼 수 있다. 삼성이 일본 대기업인 소니를 제치고 브랜드 인지도 세계 5위에 이르는 일본에서는 '삼성이 두렵다'라는 책이 출간됐고, 그 대응전략에 돌입한지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단 기업뿐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에서도 우리의 '브랜드 파워'를 만날 수 있다.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다비니코 코아'는 2002년 월드컵에서 선출된 엄청난 여자를 통해 독일에서 다비니코가 없을 게 가슴 설레게 한다.

위가 절정에 다가가는 듯 하다. '아름다운 화성' 배우들의 풍부한 감성 표현 '예측 못할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어느 나라가 흉내내고 쫓을 것인가?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중동으로 지구촌 모든 곳을 앞도할 태세다. 한류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문화트렌드'로 뿌리내린 느리나무 울음의 파적이

다. 이뿐이 아니다. 예술·패션·디자인·공예·인테리어에서 전통 발음들까지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키우고 가꿔온 소중한 교유의 브랜드를 더 발전시켜 줄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에 신뢰감을 주고, 잠재력이 있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도록 '울이'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이 우리의 기술성장이 두려워 견제하려 하고, 중국은 우리와의 기술력 차를 줄이려 노력하는 상황을 결코 파소정 가할 수 없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경쟁이만급이라고 주변국과 기를 펴고 경쟁해 역사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만하다.

이제 세계에는 우리 국가의 명운을 '홍'으로 돌리는 지혜를 발휘해 또 한번의 희망을 기대해봅시다.

동문칼럼

'기업하려는 의지'와 투자 촉진

2003년 이래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밑도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는 3.9%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 2006년 경제는 좋아질 것인가. 한국은행과 KDI는 금년에 5%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타 국내 연구기관들도 4.5~5%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 GDP의 50% 이상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총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경제 성장세를 내다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자난 수년간 세계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던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교류가 지속되는 등 일부 의회된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큰 다행스런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5% 수준의 성장 자체와 그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먼저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 추정 잠재성장률인 4.5~5% 수준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를 보여온 사실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경기회복기의 성장세로는 불만족스럽다. 더욱이 현재 1인당 소득 4만불 선에 있는 미국과 같은 성숙된 경제도 5%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겨우 1만5천불 수준에 있는 우리가 경제의 성숙기 진입을 운운하며 자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성장의 내용 면에서 기업투자, 특히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목 큰 문제이다. 자난해에는 주로 수출 호조 부문 관련 일부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그 성장세도 미미했을 뿐 아니라, 전체 설비투자는 현재 GDP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비율은 지난 1996년에 14% 수준에 달했으며, 현재 일본의 경우 16% 수준에 있다. 그런데 최근 산업은행이 내놓은 '2006년 설비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도 제조업 설비투자는 거

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있어 더욱 걱정스런 것이다. 저조한 설비투자는 당장의 경기회복과 일차적 침체이란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단기 양측 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하려는 의지'를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풍부한 기업자금 시장과 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튼튼한 기업안보와 성치안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예측 가능성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와 정부 유관행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무조건적인 반기업 정서와 반 외국자본 정서도 하루 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정전화적 내지 기업전화적 여건이 조성될 때, 시장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며 '기업하려는 의지'가 최대한 발휘돼 투자 촉진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司空 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개띠 동문 10인의 新年 소망

평화·행복 나누는 한민족이 되기를



李顯鎬(22년생·교육학46·50)
본회 고문·前대통령 영부인

새 한년의 희망은 사라지는가? 우리는 6년 전 21세기 인류에게 풍요와 평화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새 밀레니엄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새 밀레니엄 벅두에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 뒤로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테러는 오히려

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는 물론이고, 선진 부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의 문제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테러와 빈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새해 아침을 맞으며 벅한 기대에 앞서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해에는 중오와 대립이 사

라지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빈곤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 부국의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새해에는 모두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동문들은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중추로서 일하고 있다.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자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 민족은 지난 60여 년간 가난과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체험했다.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새해 아침에 평화와 행복을 나눠 갖는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느림의 문화바람이 누리에 가득히



申顯鎬(34년생·영문53·57)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개 팔자가 삼팔자’라는 속담에 어울리게 바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아오면서 터 붙한 것도 없지 않으니 결론적 주례사 하듯 두어 마디 소망을 새해, 우리 사회에 비치고자 한다. 모교 李植文 명예교수가 엮은 ‘속담사전’(1982년 개정 중판)을 座에 펼쳐 놓았다.

개와 약과 먹은 것 같다 - ‘참 맛도 모르면서 비벼 먹어 치운다’는 뜻이다.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빨리빨리’의 조금씩 패풍이 넘치고 있다. 2005년 모교 한 연구팀의 발행한 사언도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원인이라고, 한 외신이 꼬집지 않았는가. 새해에는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느린 식탁이 되었으면 한다. 적어도 약과와 맛을 알면서 꼭꼭 씹어 먹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느림의 문화, 더디고 바람이 새해에 세차게 불기를 바라고 싶다.

개 발에 편자 - ‘개 발에 주석 편자’와 같다. ‘편자’ 맞지 않고 지나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경구다. 사회 곳곳에서 지기가 철자리를 모르고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빼앗기까지 하는 슬픈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 심지어 학문의 전당이나 연구분야에서도 스스로의 위치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남의 연구성과에 편승하려는 아첨잡지 같은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발에는 아예 편자가 필요 없는데 하물며 주석 편자라니 이런 ‘개와 같은 사람’이 새해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개도 닳게 되면 주인을 안다’고 했다. 배신하지 않는 것, 배은 말먹하지 않는 것 - 이 또한 새해, 이 사회에 비치는 소망에 하나 덧붙이고 싶다.

한국경제 성장 위해 땀나도록 뛰자



金顯鎬(34년생·AMP 471)
관악회 이사·한국구아노 이사

벌써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를 보내고 丙戌年 개띠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 그대로 지난해에는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새해 연말에 이 말을 그대로 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전방이 그리 밝지 않은 듯합니다. 올해

한국경제는 4.8%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사회에 번져있는 반 기업 정서와 8·31 부동산 투기대책 등 몇 가지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 주위로 열린 최고경영자 회례 조찬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4.8%로 지난해 추정치 3.7%에 비해 1%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유가 급등 상태

의 지속과 중국 경제의 위축,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압박 등이 내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유명 투자 기관들이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하고 낙관적인 의견들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낙관적인 의견을 가슴에 가지고, 실제 일들은 비판

적인 의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년 경제는 위에서 언급한 4.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에 도박이 되는 서울대인이 되어 올해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완충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개띠 해인 만큼 우리 모두가 개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뛸시다. 명 말...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신 재무장할 때



尹鉉鎬(46년생·행정65·69)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환갑을 맞는 저의 경우 丙戌年 새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몇 가지 소망을 기원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가진 것이라곤 적박한 신하 밖에 없던 우리 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 달러에 이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The spirit of we can do)’라는 도전정신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 민주화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재무장해 다시 한번 성장성화를 만들어 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뚫어나가 제조업 등 실물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을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자본이 국경 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나 관행, 그리고 전문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세계 금융시장에 진출해 세계적 금융회사들과 함께 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걸맞는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고 실물부문을 선도해 나가는 전략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현상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동문회가 사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인이며 균형 잡힌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술인 위상 한 단계 더 성숙을



金春玉(46년생·회화64·68)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인생은 60부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연세 드신 분들의 자취 정도도 이해했었는데 丙戌年을 두 번째 맞게 된 지금 인생은 60부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이루고 싶은 일, 욕심부리고 싶은 일이나 신처럼, 바다처럼 크고 넓지만 세상이 모든 일이

생각처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도 어느 정도는 깨달은 만큼 그저 내 본성에 맞는 조그마한 욕심 정도는 부러워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진다.

그럼을 시작하지 않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젊은 시절의 활발한 그림 못지 않게 연륜이 배인 작품은 그 세월만큼 익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제는 좀더 무의미한 완속된 작품을 해볼 것 같다. 내 스스로 작

품 때문에 지어지고 부끄러워지는 일은 없도록 좋은 작품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껏 작업하는 전업 미술인들의 권익과 위상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새해에는 미술문화 환경이 좋아졌으면 한다. 미술문화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순수미술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술문화에 대한, 또 미술인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나 자신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 미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조그마한 결심과 경계가 잘 되어 사회가 인정되고 미술문화 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丙戌年에 비치는 나의 바람이다.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개는 유난히 예민한 청각과 촉각으로 모든 자극에 빠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인간은 개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줬고 개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 대 비하게 했다.

개의 해를 맞이해 각계 동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개띠 동문 10명에게 2006년에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들어보았다.

개띠 동문 10인의 新年 소망

밝은 지혜로 사회모순 극복할 때다



李鏡浩(58년생·물리교육77-8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교육부장

‘58년 개띠 생’이란 말이 유행어 가 될 만큼 58년생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모양이다. 6·25전쟁이 끝난 후 1958년에는 베이비 붐의 절정기였다. 자연히 그들 사이에 경쟁도 치열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58년생들은 중·고교 평준화 정책의 첫 대상이기도 했다. 이처럼 ‘경쟁과 평준화’라

는 상호 대립되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면서 산란된 두 특성을 구분 짓는 세대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대학에 입학했던 1977년 무렵의 관악캠퍼스는 남만과 한살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끝이 없는 대로 휴업이 잦았지만, 마티니, 커피 등으로 대변되는 나만의 낭만이 있기도 했다. 정부를 어떻게 했던 간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평등주의가 심화돼 반 엘리트주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부생들은 자신을 서울대에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출신은 싫어하는 모순적 경향이 있다.

丙戌年 새해를 코앞에 둔 시점에 우리는 국가적 영웅으로 추대받던 서울대 교수가 허영없이 추락하는 사건을 목격했다.

오늘날의 이런 현상이 비단 58년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모순적이고 양극단적인 세상을 온명처럼 살아와야만 했던 개띠 생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개띠 해를 맞이하면서 死命이 걸지 않은 58년 개띠생들이 현명이라 할지라도 무명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밝은 지혜와 안목을 갖게 돼 모순 속에서 조화를 찾게 되길 소망한다.

진정한 자존심·이해·화합 꽃피는 해



趙景浩(58년생·외투78-80)
GL 컨설팅 대표

2006년은 서울대에 입학한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의학학을 전공한 이후 섬유 패션 업계에서 일해온 지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58년 개띠의 지역(?)을 발휘해 정신 없이 일하면서 나름대로 업계의 변화와 속성도 눈여겨보게 됐다. 해외 섬유 및 패션 전시회 홍보와 브랜드 도입, 패션

정보를 전파하는 우리 회사 업무의 성과상 많은 시간을 국내외 화상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다 보면, 자연 동서양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에 대면하게 된다.

해외 업무를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한동안은 나 자신도 한·국인이란 선입견이 앞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많이 지배되었던 것 같다. 사실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자존심 내지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본질이 희석된 경우도 있었는데,

자나고 보니 결국은 진정한 자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의 감정이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다룰 때가 아닌가 한다. 올바른 친구 올바른 바리보고 올바른 판단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단련된 이성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인간애가 함께 어우러지면 이 같은 한계가 좀 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06년 새해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자존심과 관용(寬容), 이해와 화합이 꽃피는 해였으면 한다. 근래 들어 동창회를 통해 옛 친구들을 정발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솔직한 대화에서 객관적인 대모습을 보게 되는 즐거움도 얻고 있다. 새해에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도 함께 키우고 싶다.

매일 새롭게 ‘나의 재발견’ 기쁨을



朴恩惠(70년생·산림자원88-92)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매일 해가 뜨고 날이 바뀌지만 사람들이 새해 첫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되어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새 변화 맞는 개띠 해가 좀더 발전되고 새로워지는 해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삼대의 시기에 잘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청신함을 주정하기에는 진부하고 노련함을 말하기에는 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과 남북협력사업 등을 맡아 정신 없이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이 일들을 마무리짓는 과제에 제 앞에 남아 있지만 우리 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정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내민 생각하는 여러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남보다 한발쯤은 주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제 일에만 골몰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반대로 내 주장을 내세웠던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동생애 되는 팔이외의 목소리에 두 귀를 기울이는 아까가 돼야겠습니다.

그 옛날 중국의 왕왕도 ‘日新 又日新’의 교훈을 남긴 것을 보면 새로워지고, 나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아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물어볼 줄 아는 자세로 살고 싶습니다. 丙戌年 새해는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제 역할을 다하면서 남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통장잔고보다 ‘가족애’가 더 소중



金顯(70년생·약학88-92)
지하연약국 약사

2006년 올해는 고환인 부산으로 돌아온 지 10년째가 됩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시작했던 대학생활이 결혼과 출산을 맞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좀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꿈과 희망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10년 전이 떠오릅니다. 1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

다. 시점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약국을 운영했고, 남편은 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 6년간 수확해 병원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소중한 것을 잃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서 웃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 지도 모른 채 살아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나는 아무 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친정아버님이 재갑과 말기

리는 청진벽력 같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앞가림하느라 내 부모님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도 빠졌습니다. 당시 한 달 혹은 석 달을 선고받았지만 아버님은 강한 정신력으로 힘든 항암치료를 웃으며 버리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자주 드리고, 안부 묻는 자식들에게서 큰 힘을 받는다고 하시며 미소지으십니다.

이제 불혹을 눈앞에 둔 지금의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

은 늘어난 통장잔고나 넘어진 아파트보다는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나누는 가족애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2006년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2006년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 인명은 재천이라 하나 진정한 아버님께서 병마와 잘 싸워나시길 소망합니다.

‘독일 월드컵’으로 국민 단합 기대



海峴(82년생·경영01-05)
씨아비테크윌시스템 기술지원팀

연례나 연말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부족했다고 느끼는 점이 더욱 많지만, 이러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동안 비우려왔던 일들, 그리고 신년을 위해 계획한 일들을 실행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2006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2006년을 맞으며 기대되는 일 중 하나는 독일 월드컵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4강이라는 국가대표팀의 성적도 그쳤지만 온 국민이 하나 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

진 경험이었습다. 모두가 한 데 모여 한 마음이 돼 응원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도 놀랄 만한 아니라 우리조차 깨닫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는 지랄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마 나찌 않은 이번 월드컵 역시 우리 사회의 화력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하나로 똬똬 모습을 기대하

며, 그러한 단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丙戌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더욱 활발하고 왕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동문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모두 원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 기성에 화목이 있을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장학빌딩 기금 모금 '활활'

郭永騷회장 10억원 약속

지난 12월 21일 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騷(도목공학56-60 본회 부회장)회장이 본회에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9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한에 따라 '郭永騷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10억원의 건립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2002년 5월 2일 특지장학회 1억원을 출연해 '郭永騷특지장학회'를 설립한 郭永騷장은 2002년 8월부터 매학기 2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으며, 약 정금 완납 후 장학빌딩 건립으로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더 많은 모교 재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도목공학과동창회장, 한국아마추어비데올로 회장 등을 역임한 郭永騷장은 동창회뿐만 아니라 모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설립기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는 등 모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李鍾憲사장 5천만원

지난 12월 30일 덕인양행 李鍾憲



李鍾憲사장

憲(경제59-65)사장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본회에 5천만원을 출연, 부인 申甲孝(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李鍾憲·申甲孝특지장학회'를 통해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李鍾憲사장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권유로 나도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고자 결심, 연말이 가기 전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며 "고향인 충남 보령 출신 학생 가운데 모교 밭대 또는 상경계열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30여 년간 덕인양행을 운영해온 李사장은 정형외과 외고정 재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해왔으며, 현재 국내 외대부속병원의 95%가 덕인양행의 캐스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1천만원 출연 해도

지난 12월 7일부터 30일까지 11명의 동문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본회에 1천만원씩을 쾌척했

다. 출연 명단은 다음과 같다.

△河永基(정치44-48 본회 고문)前한국은행 총재 △尹世植(경제45-51)정익빌딩 회장 △安勳(수의학53-57)동문 △金基壽(법학58-62)국회의원 △尹奎永(경제58-64)두산중공업 회장 △權維雄(불문59-63)매일경제사 대표 △金辰圭(기계공학61-66)삼일특수강 사장 △蔡容鎭(법학71-78)변호사 △趙廷勳(자원공학75-81)도발코리아 대표 △朴進勳(무역76-80)한국캐티어링 수석부회장 △黃慶老(AMP 11기)한국금박공업 회장

기금을 출연한 동문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회·관악회 상임이사회

관악회 예산·회비 인상 의결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20일 서울 조선호텔 코타스홀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장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관악회 제94차 이사회 및 동창회 제14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악회 예산안과 동창회비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5년은 모교에 세간의 이목이 특별히 많이 집중되었던 한 해였지만, 우리 서울대인이 더욱 뭉치고 단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올해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모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개최해 30만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白文基고문의 건배제외에 이어 안건 심의를 통해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1차년도 목표인 1백억원 달성과 장학사업으로 5억원 지급, 그리고 장학빌딩 건립이 포함된 재단법인 관악회 2006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아許 盧사무총장은 안전 고를 통해 지난 94년부터 12년간 회비를 인상하지 않아서 물가상승과 신규사업 시행 등에 따른 재정 부족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장기간헐성의 우편 할인율 감소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회비납부 인원(동창회보통을 받아보는 동문 10만명 중 21% 납부)과 납부 동문의 높은 연령대, 평생회비 납부를 늘을 고려한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일

반회원의 연회비 2만원을 내년부터 3만원으로 올리고, 이사 연회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의결했다. 또 평생회비는 고령의 선배 동문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회비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0만원으로 하고

65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사의 경우 65세 이상은 현행대로 50만원, 65세 미만은 70만원으로 결정했다.

회비 인상으로 인한 동문들의 부담 증대를 감안해 동창회 기념품의 원가공급과 이사회비 납부 자여개는 감사 선물을 보내주는 등 납부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청·장년층 동문들의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구상하고 납부 방법도 다양화되기로 했다.



동창회비 인상 안내

동문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간 지속해온 동창회비를 물가인상과 회비 발행단가 상승 및 신규 사업 발생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147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의 동문께서는 평생회비 인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조정 내용

일 반	연 회 비	조정전		조정후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이 사	연 회 비	20,000	30,000	30,000	200,000
	연 회 비	200,000	300,000	100,000	200,000
이 사	연 회 비	700,000	700,000	700,000	500,000
	평생회비	900,000	700,000	700,000	500,000

·시행시기: 2006년 1월 1일

·문 의 처: 동창회 사무처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郭永騷동문(左)이 林光洙회장에게 10억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장학빌딩 건립 모금운동

서울대인은 벽돌 한 장 쌓는 정성을

모금 개요

■모금 현황

- 회관 건립 소요 자금 총 3백억원 중 1백97억원 확보
(동창회 기금 1백억원, 임원회 회장 50억원, 총장대 상임이사 10억원, 신명규 이사 15억원, 김철수 회장 10억원, 권영민 회장 10억원 출연)
- 향후 모금 목표 - 1백50억원

■모금 방향

- 직접 납부 또는 의정 (5년 분할 납부 가능)
- 1천만원부터 기금장학회 설립
- 5천만원부터 특지장학회 설립
- 비동문 출연 가능
- 기부-증여-유증에 의한 출연 가능 (원금-영구·부동산-유가증권 등)

■기금 및 특지장학회 설립내용

- 은행권리 이사의 이자 지급 - 기금·장학금으로 관리
- 출연자가 장학회 지정
- 해외거주 동문 출연 인정 - 출연자가 장학회를 지정(타대명 가능)

모금 참여방법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827-01-00048-017 / 신한은행 349-05-000330
농협 069-01-002391 / 조흥은행 997-01-100735
- 예금주: (재)교대
- 신용카드: 홈페이지(자료)를 통한 납입
- 지출이체(C/I): 인터넷뱅킹, 가맹점은행에 의뢰
- 직접입금: 총동창회(702-2233) / 장학빌딩(주식, 부동산 등)

출연자에 대한 예우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장학빌딩 명사록, 출연자 성명·관급, 명예의 창 등 동문 행사목에 출연자 성명·관급, 장학금(회) 명칭을 수록, 학원식 이름사, 동문, 김금영(회장)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차, 91차, 92차, 93차,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101차, 102차, 103차, 104차, 105차, 106차, 107차, 108차, 109차, 110차, 111차, 112차, 113차, 114차, 115차, 116차, 117차, 118차, 119차, 120차, 121차, 122차, 123차, 124차, 125차, 126차, 127차, 128차, 129차, 130차, 131차, 132차, 133차, 134차, 135차, 136차, 137차, 138차, 139차, 140차, 141차, 142차, 143차, 144차, 145차, 146차, 147차, 148차, 149차, 150차, 151차, 152차, 153차, 154차, 155차, 156차, 157차, 158차, 159차, 160차, 161차, 162차, 163차, 164차, 165차, 166차, 167차, 168차, 169차, 170차, 171차, 172차, 173차, 174차, 175차, 176차, 177차, 178차, 179차, 180차, 181차, 182차, 183차, 184차, 185차, 186차, 187차, 188차, 189차, 190차, 191차, 192차, 193차, 194차, 195차, 196차, 197차, 198차, 199차, 200차, 201차, 202차, 203차, 204차, 205차, 206차, 207차, 208차, 209차, 210차, 211차, 212차, 213차, 214차, 215차, 216차, 217차, 218차, 219차, 220차, 221차, 222차, 223차, 224차, 225차, 226차, 227차, 228차, 229차, 230차, 231차, 232차, 233차, 234차, 235차, 236차, 237차, 238차, 239차, 240차, 241차, 242차, 243차, 244차, 245차, 246차, 247차, 248차, 249차, 250차, 251차, 252차, 253차, 254차, 255차, 256차, 257차, 258차, 259차, 260차, 261차, 262차, 263차, 264차, 265차, 266차, 267차, 268차, 269차, 270차, 271차, 272차, 273차, 274차, 275차, 276차, 277차, 278차, 279차, 280차, 281차, 282차, 283차, 284차, 285차, 286차, 287차, 288차, 289차, 290차, 291차, 292차, 293차, 294차, 295차, 296차, 297차, 298차, 299차, 300차, 301차, 302차, 303차, 304차, 305차, 306차, 307차, 308차, 309차, 310차, 311차, 312차, 313차, 314차, 315차, 316차, 317차, 318차, 319차, 320차, 321차, 322차, 323차, 324차, 325차, 326차, 327차, 328차, 329차, 330차, 331차, 332차, 333차, 334차, 335차, 336차, 337차, 338차, 339차, 340차, 341차, 342차, 343차, 344차, 345차, 346차, 347차, 348차, 349차, 350차, 351차, 352차, 353차, 354차, 355차, 356차, 357차, 358차, 359차, 360차, 361차, 362차, 363차, 364차, 365차, 366차, 367차, 368차, 369차, 370차, 371차, 372차, 373차, 374차, 375차, 376차, 377차, 378차, 379차, 380차, 381차, 382차, 383차, 384차, 385차, 386차, 387차, 388차, 389차, 390차, 391차, 392차, 393차, 394차, 395차, 396차, 397차, 398차, 399차, 400차, 401차, 402차, 403차, 404차, 405차, 406차, 407차, 408차, 409차, 410차, 411차, 412차, 413차, 414차, 415차, 416차, 417차, 418차, 419차, 420차, 421차, 422차, 423차, 424차, 425차, 426차, 427차, 428차, 429차, 430차, 431차, 432차, 433차, 434차, 435차, 436차, 437차, 438차, 439차, 440차, 441차, 442차, 443차, 444차, 445차, 446차, 447차, 448차, 449차, 450차, 451차, 452차, 453차, 454차, 455차, 456차, 457차, 458차, 459차, 460차, 461차, 462차, 463차, 464차, 465차, 466차, 467차, 468차, 469차, 470차, 471차, 472차, 473차, 474차, 475차, 476차, 477차, 478차, 479차, 480차, 481차, 482차, 483차, 484차, 485차, 486차, 487차, 488차, 489차, 490차, 491차, 492차, 493차, 494차, 495차, 496차, 497차, 498차, 499차, 500차, 501차, 502차, 503차, 504차, 505차, 506차, 507차, 508차, 509차, 510차, 511차, 512차, 513차, 514차, 515차, 516차, 517차, 518차, 519차, 520차, 521차, 522차, 523차, 524차, 525차, 526차, 527차, 528차, 529차, 530차, 531차, 532차, 533차, 534차, 535차, 536차, 537차, 538차, 539차, 540차, 541차, 542차, 543차, 544차, 545차, 546차, 547차, 548차, 549차, 550차, 551차, 552차, 553차, 554차, 555차, 556차, 557차, 558차, 559차, 560차, 561차, 562차, 563차, 564차, 565차, 566차, 567차, 568차, 569차, 570차, 571차, 572차, 573차, 574차, 575차, 576차, 577차, 578차, 579차, 580차, 581차, 582차, 583차, 584차, 585차, 586차, 587차, 588차, 589차, 590차, 591차, 592차, 593차, 594차, 595차, 596차, 597차, 598차, 599차, 600차, 601차, 602차, 603차, 604차, 605차, 606차, 607차, 608차, 609차, 610차, 611차, 612차, 613차, 614차, 615차, 616차, 617차, 618차, 619차, 620차, 621차, 622차, 623차, 624차, 625차, 626차, 627차, 628차, 629차, 630차, 631차, 632차, 633차, 634차, 635차, 636차, 637차, 638차, 639차, 640차, 641차, 642차, 643차, 644차, 645차, 646차, 647차, 648차, 649차, 650차, 651차, 652차, 653차, 654차, 655차, 656차, 657차, 658차, 659차, 660차, 661차, 662차, 663차, 664차, 665차, 666차, 667차, 668차, 669차, 670차, 671차, 672차, 673차, 674차, 675차, 676차, 677차, 678차, 679차, 680차, 681차, 682차, 683차, 684차, 685차, 686차, 687차, 688차, 689차, 690차, 691차, 692차, 693차, 694차, 695차, 696차, 697차, 698차, 699차, 700차, 701차, 702차, 703차, 704차, 705차, 706차, 707차, 708차, 709차, 710차, 711차, 712차, 713차, 714차, 715차, 716차, 717차, 718차, 719차, 720차, 721차, 722차, 723차, 724차, 725차, 726차, 727차, 728차, 729차, 730차, 731차, 732차, 733차, 734차, 735차, 736차, 737차, 738차, 739차, 740차, 741차, 742차, 743차, 744차, 745차, 746차, 747차, 748차, 749차, 750차, 751차, 752차, 753차, 754차, 755차, 756차, 757차, 758차, 759차, 760차, 761차, 762차, 763차, 764차, 765차, 766차, 767차, 768차, 769차, 770차, 771차, 772차, 773차, 774차, 775차, 776차, 777차, 778차, 779차, 780차, 781차, 782차, 783차, 784차, 785차, 786차, 787차, 788차, 789차, 790차, 791차, 792차, 793차, 794차, 795차, 796차, 797차, 798차, 799차, 800차, 801차, 802차, 803차, 804차, 805차, 806차, 807차, 808차, 809차, 810차, 811차, 812차, 813차, 814차, 815차, 816차, 817차, 818차, 819차, 820차, 821차, 822차, 823차, 824차, 825차, 826차, 827차, 828차, 829차, 830차, 831차, 832차, 833차, 834차, 835차, 836차, 837차, 838차, 839차, 840차, 841차, 842차, 843차, 844차, 845차, 846차, 847차, 848차, 849차, 850차, 851차, 852차, 853차, 854차, 855차, 856차, 857차, 858차, 859차, 860차, 861차, 862차, 863차, 864차, 865차, 866차, 867차, 868차, 869차, 870차, 871차, 872차, 873차, 874차, 875차, 876차, 877차, 878차, 879차, 880차, 881차, 882차, 883차, 884차, 885차, 886차, 887차, 888차, 889차, 890차, 891차, 892차, 893차, 894차, 895차, 896차, 897차, 898차, 899차, 900차, 901차, 902차, 903차, 904차, 905차, 906차, 907차, 908차, 909차, 910차, 911차, 912차, 913차, 914차, 915차, 916차, 917차, 918차, 919차, 920차, 921차, 922차, 923차, 924차, 925차, 926차, 927차, 928차, 929차, 930차, 931차, 932차, 933차, 934차, 935차, 936차, 937차, 938차, 939차, 940차, 941차, 942차, 943차, 944차, 945차, 946차, 947차, 948차, 949차, 950차, 951차, 952차, 953차, 954차, 955차, 956차, 957차, 958차, 959차, 960차, 961차, 962차, 963차, 964차, 965차, 966차, 967차, 968차, 969차, 970차, 971차, 972차, 973차, 974차, 975차, 976차, 977차, 978차, 979차, 980차, 981차, 982차, 983차, 984차, 985차, 986차, 987차, 988차, 989차, 990차, 991차, 992차, 993차, 994차, 995차, 996차, 997차, 998차, 999차, 1000차, 1001차, 1002차, 1003차, 1004차, 1005차, 1006차, 1007차, 1008차, 1009차, 1010차, 1011차, 1012차, 1013차, 1014차, 1015차, 1016차, 1017차, 1018차, 1019차, 1020차, 1021차, 1022차, 1023차, 1024차, 1025차, 1026차, 1027차, 1028차, 1029차, 1030차, 1031차, 1032차, 1033차, 1034차, 1035차, 1036차, 1037차, 1038차, 1039차, 1040차, 1041차, 1042차, 1043차, 1044차, 1045차, 1046차, 1047차, 1048차, 1049차, 1050차, 1051차, 1052차, 1053차, 1054차, 1055차, 1056차, 1057차, 1058차, 1059차, 1060차, 1061차, 1062차, 1063차, 1064차, 1065차, 1066차, 1067차, 1068차, 1069차, 1070차, 1071차, 1072차, 1073차, 1074차, 1075차, 1076차, 1077차, 1078차, 1079차, 1080차, 1081차, 1082차, 1083차, 1084차, 1085차, 1086차, 1087차, 1088차, 1089차, 1090차, 1091차, 1092차, 1093차, 1094차, 1095차, 1096차, 1097차, 1098차, 1099차, 1100차, 1101차, 1102차, 1103차, 1104차, 1105차, 1106차, 1107차, 1108차, 1109차, 1110차, 1111차, 1112차, 1113차, 1114차, 1115차, 1116차, 1117차, 1118차, 1119차, 1120차, 1121차, 1122차, 1123차, 1124차, 1125차, 1126차, 1127차, 1128차, 1129차, 1130차, 1131차, 1132차, 1133차, 1134차, 1135차, 1136차, 1137차, 1138차, 1139차, 1140차, 1141차, 1142차, 1143차, 1144차, 1145차, 1146차, 1147차, 1148차, 1149차, 1150차, 1151차, 1152차, 1153차, 1154차, 1155차, 1156차, 1157차, 1158차, 1159차, 1160차, 1161차, 1162차, 1163차, 1164차, 1165차, 1166차, 1167차, 1168차, 1169차, 1170차, 1171차, 1172차, 1173차, 1174차, 1175차, 1176차, 1177차, 1178차, 1179차, 1180차, 1181차, 1182차, 1183차, 1184차, 1185차, 1186차, 1187차, 1188차, 1189차, 1190차, 1191차, 1192차, 1193차, 1194차, 1195차, 1196차, 1197차, 1198차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서 전시품 둘러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2005년은 동창회가 개최한 행사 때마다 동문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참여와 호응을 보내줬고, 동창회보도 특집 인터뷰, 모교 소식 등을 강화하면서 동문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보를 기다리게 한 것 같다"며 "동창회회를 기점으로 시작한 장학재단 건립기금 모금활동이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날 박물관 회의실 사육과 투어일정을 마련해준 李建茂(고교인류65-69)관장은 "33년간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심분 발휘해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在孝 명예회장의 건배제에 이어 許 廬사무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서울대 마크가 새겨진 뱃지를 제작해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동산대회 협찬자들에게는 미대 동문들의 작품을 게재한 달력과 다이어리 세트를 발송해 드렸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두

팀으로 나눠 1시간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는 순서를 가졌다. 첫 번째 팀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金在烈(국사학83-87)연구관과 미술부 金惠媛(고교미술사90-94)연구사의 안내로 고교관과 역사관을 둘러보고 최고 인기 전시물로 선정된 경주 황남대총 출토 신라금관과 분와 등을 구경했다. 다른 한 팀은 미술부 李秀美(고교미술사84-88)연구관과 전시팀 宣承憲(미학89-93)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용사 이전 후 새롭게 준비한 아시아관 등을 감상했다. 이날 도임에는 金在孝 명예회장을 비롯해 林光洙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韓斗鎭·尹勳勳·安秉勳·洪性大·辛鉉維 부회장, 관악회 申明圭이사, 朴英俊감사, 丁海昌 법대동창회장, 河權勳의대동창회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 吳應準대전·충남지부동창회장, 許 廬 사무총장 등 동창회 임원과 동창회보 金哲洙·林炯과 李炯均·南仲九·金錫綱·安柄豪·丘月煥·宋銀赫·金好俊·安國正·金鍾勳·金仁圭·徐玉植·李元震·朴聖旭·金錫國는설위원, 모교 李錫仁부총장, 李美娜학장서장, 余漢星교무부처장, 鄭道源연구부처장, 金南一사무국장, 朴聖賢학령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表)

법과대학동창회

동송동에 표지석 세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丁海昌)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종로 사법대학 부설 초등학교(舊동송동 캠퍼스)에서 '법과대학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했다.

丁海昌회장은 "현 서울시대 부설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는 49년부터 26년 동안 법대인들의 꿈을 키워준 소중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梁昌德(행정48-52)·孫一根(법학51입)·蔡命仁(법학52-56)·鄭又讓(법학56-60)·表桂錫(법학56-60)·金錫卓(행정56-60)·宋榮壽(법학56-



60)·李英俊(법학57-61)·李元宅(행정61졸)·崔相暉(행정61졸)·李仁宰(법학58-62)·崔昌植(행정58-62)·曹圭春(법학60-64)·吳允德(행정65졸)·金正國(행정61-65)·千璣集(행정62-66)·權純旭(행정68-72)·李光澤(행정68-75)·成樂寅(행정69-73)등문 등이 참석했다.

(南)

1면 <루름>의 화가

李奎鮮 약력

- ▲57~61년 도쿄 미대 초·과과 졸업
- ▲대한민국 미술전 국무총리상
- ▲문공부장관상·추천작가상
- ▲대한민국 미술전 심사위원
- ▲국내 개인전 11회
-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제8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은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06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6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좌로부터 李相周·金后蘭·權台仙·朴美子·羅根炳 등문

사법대학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사법대학동창회(회장 李相周)는 지난 12월 9일 서울 프래지던트호텔 19층 신세계층에서 송년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시상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 회장·許 韓사무총장을 비롯해 李應賢·崔榮祥교문, 모교 사법대학 尹正一회장, 강민대 崔敬賢총장 등

등문 1백여 명이 참석해 올해 사법대학동창회를 빛낸 동문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세계 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 朴美子(국어교육46·50)회장, 문하의 집 서을 金后蘭(가정교육53집)이사장, 인천광역시 羅根炳(수학교육58·62)교육감, 모교 李瑞瀾(지리교육59·63)교수, 한겨레신문 權台仙(영어교육74·78)편집위원장, 林光洙(교육학79·94)국회의원이 선정됐다.

부산지부

河基成회장 재추대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河基成)는 지난 12월 12일 3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河基成(경제58·62 일신산업 회장)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임기 동안 분주한 일정 속에서 동창회에 대한 열의만 높았지 해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서울대 동문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金鍾植(섬유공학61·65 동부실업 사장)상임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년 전 河회장이 취임하면서 '마음의 고향 만들기'와 '지역 사회봉사'라는 동창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30명 규모의 동창회 사무실을 개관했고 지난해 처음 연회비를 걷어 3백50여 명의 동문이 회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는 회의를 통해 河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했으며, 동문들은 지난 2년간의 업적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2년간의 더 큰 발전에 대한 기대를 담아 열렬한 박수로 환영했다.

2부 순서에서는 동문 가족의 생동감 있는 밸리댄스, 음대 동문으로 구성된 '클라시카'의 감미로운 연악5중주, 여성 동문과 가족이 함께 한 합창 등을 감상하며 동문과 가족 간 훈훈함을 함께 나눴다.

관악무역인회

表相基회장 신출



관악무역인회(회장 尹炳基)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캐비닛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徐廷煥·崔珪五·曹章鎭 명예회장, 동문 부부 40여 명이 참석해 미니음악회, 선물교환, 빈고개인을 즐기며 동문간 우의를 다졌다.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상지상사 表相基(원자력공학61·65)회장을(사진)을 선출했다.

기독동문회

鄭相鶴회장 복야



기독동문회(회장 鄭相鶴)는 지난 12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우일합동법률사무소 鄭相鶴(행정56·60)대표변호사(사진)을 선출했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장로인 鄭동문은 6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6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부장,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대학원동창회

姜寅求회장 선임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申碩鈺)는 지난 12월 9일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 강릉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과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모교 姜寅求(69·71·수의학59·64)교수(사진)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姜회장은 자랑스러운 동문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姜동문을 비롯해 올 한 해를 빛

낸 자랑스러운 보대인으로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의류분장조정위 曹慶鍾(68·70·수의학56·60)위원장, 한국메디텍제약 金鍾判(71·73)부사장, 가천의대 길병원 李喆玉(72·74)상임교문을 선정했다. (南)

제3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3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2003년 4월 발행한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 총동창회가 서울대 출신 언론인을 가운데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활동한 서울대 출신 언론인을 찾아 매년 시상하는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과 언론사 경영인, 언론 연구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천 일정: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 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 2) 언론단체의 대표
- 3) 대학 저널리즘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1) 추천서: 추천인은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하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press@hanmail.net)로 2006년 1월 15일 밤 12시까지 접수시켜야 합니다.
- 2) 공적 자료: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준비도 갖추기 바랍니다.

5. 추천 기한: 2006년 1월 15일

6. 수상자 발표: 2006년 1월말

7. 시상식 및 시상 내역: 2006년 2월 20일, 상패와 상금 1천만원

8. 문의: E-mail(snu-press@hanmail.net)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행정대학원동창회 鄭正信회장 (울산대 총장)

행정대학원동창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신입 회장에 울산대학교 鄭正信(행정61·65)총장을 선출했다. 이에 鄭회장에게 그동안의 활동과 모교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물었다.

“행정대학원은 1959년 창립한 이후 석사과정 3천4백여 명, 박사과정 1백2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친 동문들 대부분은 행정고시출신으로서 행정부에 근무해왔고 그 외의 졸업생들도 대부분 공공분야에 근무하고 있죠. 이들은 고도성장기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공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동창회 활동 상황은.

“사실 현재의 동창회 활동은 비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3번 모임을 갖고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교의 중요 행사에 동창회 간부들이

참석해 축하해주는 정도이니까요. 2년 동안 같이 다녔던 동문들이 모인 전문대학원 동창회가 지나니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새해부터는 좀더 활성화된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모교에서 분직하시다가 울산대 총장에 부임하셨는데.

“울산대는 사립대학으로서의 보기가 드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튼튼한 재단이 뒷받침을 해주면서도 학교 운영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으며, 전국 2백여 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언제나 20위 이내의 평가를 받는 대학입니다. 또 울산대는 좋은 입지적 여건으로 주변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우수 교육·연구 위해 더욱 분발

과의 산학협력력을 통한 특성화를 이룬 대학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운영상에 결함들이 있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두 수도권으로만 가

려고 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생은 줄어드니 문제가 있죠.”

- 모교의 세계적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좀더 분발해야 할 점은.

“대학의 세계적 위상은 우수한 교육과 훌륭한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우수한 교육과 훌륭한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죠. 우선 좋은 교육시설과 열성적인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많은 대학들이 모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교도 상당히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 동창회 발전에 위해 한 말씀.

“우리들은 과거부터 동문을 찾고 모교를 찾는 것을 마치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더욱이 최근까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교가 발전해야 한국이 잘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총동창회의 좋은 일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

(享)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상대대학동창회 洪龍濤회장 (우성해운 대표)

지난 12월 상대대학동창회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신임 회장에 선출된 우성해운 洪龍濤(경제64·72)대표는 80년대 말부터 임원으로 활동하며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동문이다.

신임 洪회장은 “앞으로 재학생 축제, 신입생 환영회, 교수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동문들에게 동창회와 존재를 각인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AMPFRI동창회 呂弼東회장 (서초로얄프라자 대표)

- 서초로얄프라자 외에 몇 개 업체를 더 운영하신다고.

“2년 전 상명대 인근에 ‘자하문(www.jahamun.com)’이란 한정식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외국처럼 ‘밥을 이어 갈 음식’임을 하고 싶었지요. 오펜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민들이 선정한 ‘자장스러운 한국 음식점’ 3호점으로 등록돼 있고, 회장실 청결문화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국립전문점 ‘장날’은 여럿을 적에 먹

장학기금 확충·만남의 장 확대

“그동안 회장을 맡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오너출신의 유명인사들이었습니다. 동창회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헌신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를 뽑은 이유가 동창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도움을 줄 것이며 동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 동창회 분위기는 어떤지.

“각 동창회 조직은 잘 갖춰져 있는데 하나도 동지는데 예로정이 있습니다. 또 관악세대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경제학부가 사회과학대로 편입되면서 젊은 동문들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인의 정제상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다른 모임은 있었는데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올해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또 동문 가운데 회계사청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이여요. 이들은 분들을 독려해 장학금을 늘려야 할 생각입니다. 현재 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주고 있는데, 매년 각축하는

방식이라 불합당한 면이 있습니다.”

- 우성해운에서 운동권 출신 졸업생들을 많이 뽑아들이셨는데.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학창시절 한·일협정에 반대해 ‘군화 화형식’을 주도하는 등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74년 이 회사를 설립해 현재 마주시장으로 보내지는 화물의 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 나라 해운회사 중 네 번째라고 자부합니다.”

아북(강원도 고성군)이 고창인 洪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모교에 입학해 아이젠버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해운파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89년 제정직의실정시연한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한국국제해운협회장, 시민의 신문 운영위원장, 경남중고 서울 동창회장, 한국과국에 무역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 가운데 제1회 TFPS학회의 최고점점자인 차녀 洪淑媛(경제학96-00)씨와 제4회 사립시험에 수석 합격한 삼녀 洪眞映(법학00-03)씨가 동문이다. (南)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힘쓸 터

지난 12월 20일 식품·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AMPFRI)동창회 신입 회장에 선출된 서초로얄프라자 呂弼東(1기)대표는 올 한 해 AMPFRI동창회를 홍보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 모교에 AMPFRI과정이 개설되는 데 힘을 쓰셨는데.

“현재 외식업은 음식숙박업이란 명칭으로 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식당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지만 외식업 종사자 수가 매출액은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에 대한 학문적·인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뜻 있는 분들과 서울대에 건의를 해서 이 과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 동창회 분위기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모두 순수해요. 외식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요. 우리 과정에 입학한 분들은 외식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 오셨다고 했을 때는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동창회 행사가 독려하지 않아도 1백명은 기본적으로 참여합니다.”

던 패지극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편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 현재 화곡, 구의, 당산, 강남, 신촌점에 있습니다.”

- 2006년 추진 사업은.

“올해가 서울대 개교 60주년이로 알고 있습니다. 60주년 기념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총동창회를 도와 음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동문 업체 중 7~10개 업체를 선정해 축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건대학원과 협의해 과장인원을 배가시켰으면 합니다. 각 기수의 회장단이 힘을 모으면 인원을 채우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북 김천이 고창인 呂회장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보석세 공업체를 운영했다. 현재 워딩·연회회 소인 서초로얄프라자와 두 개의 외식 업체를 운영하며 1백50여명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일음식교류협회 이사, 한국식생 활학회 운영위원, 한양대 최고경영자대인턴 대표직도 역임한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일본·중국시장에서 한정식 뷔페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南)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

동문을 찾아서

孫 京 植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답 : 본보 취재팀(본보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제18대 회장으로 본회 부회장이 CJ그룹 孫京植(법학 57·61)회장이 선출됐다. 孫회장은 취임 직후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대한상의, 전 기업 정서 확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상의를 간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孫회장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제인제당을 불과 10여 년만에 오늘날의 CJ그룹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한 경영의 귀재이자, 온화한 성품으로 배사 최선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협상의 대가. 그런 점에서 대한상의의 이번 회장 선출은 ‘이보다 더 적절한 수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孫회장을 만나 소감과 계획, 개인사 등에 대해 들어봤다.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없애려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규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규제가 기업활동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지만 실제 지원은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성과가 좋은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까지도 중소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고 영업 이익도 좋지 않았습나다. 기업에도 소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행히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운동이 그것이지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결재가 빨라지고 있고, 자금리도 은행에 자금을 맡겨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또 제품 개발 단계부터 협력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협력업체와 좋은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스스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의원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까. 대한상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괄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을 한 해 평가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는 ‘투자자 몰리기’를 촉발시켜 내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6.9% 성장한다’는 예상치를 내놓았죠. 수출은 환율이 변수로 작용해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요. 투자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의 투자가 핵심 키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건설 투자의 현재 8·31 부동산종합대책 조치로 민간 건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회기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해 3/4분기 이후 경기가 나아졌으니까 이런 추세로

한 가지가 될수록 기업은 맑아지고 발전하겠지요. 실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대한상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 임의가입으로 변경될 텐데 그렇게 되면 회원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올해 말부터 의무가입제가 폐지됩니다. 대한상의의 산하에 7개 지역 상의가 있는데 임의가입제로 변경되면 우선 이들 지역 상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란 무엇보다 기업을 뿌리로 하는 것인데도 우리 나라에는 반 기업 정서의 기운이 강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도 반 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들으십시오.

“반 기업 정서 해소는 간단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야겠지요. 반 기업 정서가 확산된 데는 사회적인 문제, 특히 빈부 격차 등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

— 대한상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예일지 모르지만 5만 거가 넘는 회원 기업을 모두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 일기를 시작하면서서 비로 리모델링한 새 건물로 옮기셨는데.

“사실상 신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연건평만 3만3천평으로 서울의 10대 건물에 속합니다. 우리 회원 기업들의 좁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 회원들께서 회비를 열심히 내시는 등 협조를 해주셨고 차츰전 전임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께서도 저원 마련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죠. 이 건물은 점차 회원들에게는 자부심이 될 테고, 대한상의로서는 수직/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축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요. 새 건물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무엇인지요.

“상당히 저렴하게 지었는데 우리 회원사로 건설 주관을 맡은 대림산업에서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라는 타어에 걸맞게 훌륭한 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통역 시설을 갖춘 크고 작은 회의장도 여럿 마련돼 있고요. 전에는 호텔에서 해야 했는데 이제는 이곳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 한·말레이시아 경제인 간담회에 盧武鉉대통령과 동행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말레이시아와 함께 필리핀에서도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두 곳 모두 상의가 있었어요. 양국 상의와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호간 경제 협력 및 국제교류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는 13년만에 경제협력위원회를 부활시켰고, 1992년 경제협력회의를 한 차례 연 뒤 그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경제협력 사항을 제안해왔습니다. 우리는 검토해서 연락하기로 했지요. 요즘의 비즈나스는 국제간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들 국가와 확실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데 큰 의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육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및 초·중·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에 힘을 기울일 자정입니다. 또 해나는 기업 자체가 강한 믿는 기업이 되도록 해야지요. 기업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일하신 만큼 기업의 경영 의식 변화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의 생활습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듯 기업의 경영 문화도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환기는 외환위기였지요. 외환위기가 당시 투명경영이 강조돼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보려던 기업들에는 상당히 혼란을 치렀죠. 이후 윤리경영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사회와 더불어 사는 것이 기업의 중요

의 회원 가입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한상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도록 해야겠지요. 그러자면 무엇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회원들의 뜻을 좀더 강력하게 대변하고 애로사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대안을 찾는 정책개발 기능도 한층 높이고, 회원사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서비스, 경영 정보서비스 등을 강화해야지요. 회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한상의,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한상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 회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 각종 규제들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안 된다 하는 것도 많습나다. 대한상의는 이런 애로사항들을 조사해 지난 2년간 8백건에 대해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그 중 절반 정도가 수용됐습나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못 느끼는 건

회원사에 경영개선·정보서비스 강화 대기업·협력업체간 상생운동도 함께



□ 간단면 용 삼반까지 회복되리라
고 봅니다.

— 올해 지방 선거는 변수도 있는데,

“우리의 희망은 이제 선거가 더 이상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난파장들의 뱀은 공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겠죠.”

— CJ그룹이 삼성에서 분리된 게 93년 말이었죠. 분리된 지 얼마 안돼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는지, 당시 다들 어려웠지만 몇몇 수출기업은 환율 덕을 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아 힘들었지요. 환율 급등으로 손익이 악화됐어요. 그때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경영의 안정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든든지 사업 내용 자체에서의 위기는 없었던 거지요. 당시 CJ 투자신탁에서 갖고 있던 회사채가 불씨가 돼 파해를 보긴 했습니다.”

—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물론 기업간 협상에서도 항상 온화한 성품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스타일을 평가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 설득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터득한 지혜라고 할까요.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또 대화를 해나갈 때 논리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연구해 조리 있게 대화를 펼쳐 나가기야죠. 내 욕심대로만 얘기한다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화를 내고 담배는 것보다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대화하면서 설득하다 보니 아마 온화한 성격으로 비칠진 것 같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셨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대학입학 검정고사라는 게 있더라 한 번 시험을 보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력 합력했습니다. 나친 길에 3개월 동안 준비해 모교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경기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써서 받았습다.”

— 남들보다 대학에 1년 먼저 들어가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아시다시피 법대에서는 영어공부를 별로 안 시키잖아요.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녔으면 지금보다 영어를 좀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같이 대학을 다닌 고교 1년 선배도 동창이고 대학 1년 후배도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아닙니까. 동기 동창이 두 배로 늘어나겠지요.”

— 대학 졸업 후 은행에 근무하시다 유학을 갔는데요.

“한일은행에 다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대에 가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쳤어요. 68년에 돌아와 삼성 비서실 신규사립에서 삼성전자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69년 1월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된 뒤 6년 동안 정발 영업이 일했지요. 관리와 영업 등을 모두 배웠습니다.”

— 삼성전자에서 한국화학로 옮기신 게 73년이죠. 다음해 만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표이사를 맡으셨는데 어려움은 없었

는지요.

“주위 분들과 연령차가 있더라니 어색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죠.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남들이 한번 찾아갈 사람을 저는 두세 번 찾아갔어요. 공을 들였더니 그 만큼 점수를 주더라고요. 보험 경영을 공부하느라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의 보험 경영이 그리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국내 서적으로 불충분해 외국 서적을 구매 읽었어요. 시간이 부족해 책과 자료를 집에까지 들고 가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4.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지요. 미국의 유명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지요.”

— 제일세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한 뒤 CJ그룹으로 변신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지요.

자본주의 바로 알려 반 기업 정서 해소 장학빌딩 건립에 많은 동문들 참여하자



“한국화재를 삼성에 넘겨주고 제일세당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다각화였지요. 식품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가 위생방산과 케어발산 등 신제품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영상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로서는 좀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이 국내 85%, 해외 15% 정도인데 2013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50% 정도로 올릴 계획이죠.”

— 그 당시로서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분야에 진출하셨는데 고민은 없으셨는지.

“기업마다 그에 맞는 기업 문화가 있고 그곳에 적응하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전 통산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영상 컨설팅산업과 미디어산업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또 그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걱정용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적응하고 수용을 했죠. 요즘 젊은이들의 감각이 빠른 것 같습니다. 새 사업에 투입된 젊은이들이 빠르게 적응했죠.”

—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분의 경쟁력은, 최근 경쟁업체들이 좀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CJ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몇몇 기획에서 경쟁사에 약간 밀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전통산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기존 문화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네 따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겁니다. 최근 CJ엔터테인먼트를 지주회사와 사업 부문으로 나눠 지주회사 부문은 CJ(주)에 합병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했지요.”

—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바쁜데 CJ 그룹 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결재는.

“중요한 사항은 CJ그룹 공동 회장인李在義회장과 의논합니다. 李在義회장이 일을 많이 합니다. 세세한 일에 대한 서류 결재를 안 하니 오라왔고요. 한국화재에 있을 때도 그랬죠. 누가 왜 서류 결재를 안 하냐고 묻기에 회장이 일일이 다 결재하면 어떻게 큰 흐름을 볼 수 있겠냐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다 결재하고 결정을 내려준다면 실무자는 책임감 없이 일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사의 문제죠. 노라는 잘 못합니다. 꼭 해야하면 서유석의 ‘가는 세월’을 부릅다.”

— 가족 소개를 해주십시오. 임교부부도 소문나 있던데요.

“그리고요. 아내(김소희)와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출생 중에 같이 산책을 열심히 했더니 그라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딸(희영)은 현재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중이고 아들(주홍)은 CJ그룹 직원입니다.”

— 본회 부회장과 모교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 명예회장, 모교 발전추진회 장 등을 맡고 계십니까. 지난해 모교가 폐교된, 논술고사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방전을 위한 용역이라고 봐야겠지요. 논술시험도 그렇고 학생선발 문제 같은 건 대학의 재량에 맡겨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마음에 담고 계신 좌우명이 있다면.

“늘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고 봅니다. 굳이 어려운 말을 쓸 것도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 CJ그룹에서 2002년 모교에 언어교육원을 세운데 이어 최근 다시 모교에 ‘CJ 인터내셔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CJ 인터내셔널센터’는 모교에 재직 또는 재직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지요. 외국인들이 정보도 얻고 연락 사항도 전달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언어교육원을 세울 당시엔 李秉俊 전임 총장의 권유가 있었고 이번엔 鄭雲龍 총장의 권유에 따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이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에 국제관계 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지요.”

—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동문 후배들에게 당부할 말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배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후배들도 스스로를 닦는데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특히 국제적 시대에 걸맞은 인내가 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능하라면 영어 외에도 한 가지쯤 더 하면 좋겠지요.”

— 현재 총동창회가 미묘의 장학빌딩 건립을 위해 노력중이고, 많은 동문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문들께 한 말씀해주십시오.

“장학빌딩은 앞으로 서울대 동문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여주는 건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실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허기과정 등에서의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동문들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孫京輔회장은 1957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 61년 졸업 후 오클라호마주법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쳤고 모교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한일은행 행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한국화재해상보험 이사·대표이사 전무·사장·부회장, 한국보통보험 부회장, 서울시 사격연맹 회장, 장기신용은행 이사, 제일경제부 부회장, 대한제약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감사, 모교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감사·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리는 차승우기자)

서울대 가족

安泰玩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

장남·사위는 경제전문가, 차남은 모교 교수로 활약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말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

“우리 나라가 보트고개를 넘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개발해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때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공장에서 땀흘리며 공업화를 이뤄냈고, 무엇보다 서울 공대생들이 큰 몫을 해냈습니다. 지금도 각 기간산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모교 출신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보다 삶의 질을 따지게 되면서 생활이 달라졌어요. 생활수준이 높아졌으면 그만큼 기술자들에 대한 대접도 나아져야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 어느 누가 힘들게 공부해서 적은 월급으로 지방에서 손에 기름을 묻히며 일을 하겠습니까?”

교본자공학 권위자로서 모교에서 훌륭한 공학도를 배출하고, 기술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병생을 바친 安泰玩(화학공학52·56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등은, 그는 가족 소개에 앞서 우리 나라 이공계에 대한 격정부터 털어놓았다.

정부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졸업 때마다 대학을 강구했던 安泰玩은 지금은 차남 安哲熙(섬유교본자공학87·92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등과 함께 이공계의 앞날을 고민하고 있다고.

“퇴임 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서에도 배우고, 음악도 마음껏 즐기며 오래된 카메라로 이곳저곳의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학문을 오래 하다보니 관련 책도 안 쳐다보게 돼요. 메달라진 감성도 되찾고 그렇게 조용히, 큰 욕심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이 늙은이가 목소리를 높인들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보다



왼쪽 좌로부터 세 번째 安泰玩등은, 뒷줄 좌로부터 安哲熙·安哲熙 등문, 한 명 건너 朴釘珠등문

나았습니까? 우리 공대 후배들이 뜻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1녀2남 중 차남 安哲熙등문이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공계를 택한 반면, 장남 安哲孝(경제86·90 법무법인 율촌 경제전문 변호사)등문은 부친의 의도대로(?) 사회계통을 전공하게 됐다. 게다가 사위 朴釘珠(경제81·85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등문도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30여 년간 공학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제 아이들은 분야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덜 힘든 문과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장남 哲孝가 수학실력이 뛰어나고 이공계 성향이 짙어서 어릴 적부터 경제학을 권유했습니다. 哲孝는 취미가 다들인데, 그 중에서 스포츠 관람을 제일 좋아했어요. 대

입시할 기간이 있던 지난 86년, 아사안개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과 종목 등을 노트 뒤에 빼곡이 적어 경기결과를 체크하며 이에 대한 평론을 늘어놓기까지 했으니깐요.”

“막내 哲熙는 책을 많이 읽고 글자주가 뛰어나 독후감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탔어요. 유머러

스하고 감정이 풍부해 문과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형이 경제학과를 갔으니 나라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겠다며 3개월 간 저와 대립했는데,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수시절, 哲熙가 제 강의도 듣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연구실에 들르곤 했는데,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대화를 참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장남 安哲孝등문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MBA까지 마쳤으나 다시 Law School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5년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경제지식을 토대로 국내 기업의 M&A, 채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사위 朴釘珠등문은 역시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安泰玩등문의 서울대 가족

장남

安哲孝(경제86·90)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차남

安哲熙(섬유교본자87·92)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

사위

朴釘珠(경제81·85)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뒤 미국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을 겸하며 예리한 분석력과 뛰어난 입단으로 각종 학회 및 방송에서 토론자로 또 사회자로 활약하고 있다. 朴釘珠등문의 집안과는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사이로, 차등문의 여동생과 장녀 安惠映씨와는 같은 대학 동기동창생이라고. 한편 安泰玩등문은 자신을 시대의 ‘형운아’라고 부른다.

“일제 식민지시대 6·25전쟁 와중에도 이렇게 대학을 나와 외국유학도 하고 모교 교수로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자원해주시는 선친 덕분입니다. 장남 哲熙의 작은 시골에서 5남 중 막내로 태어나 마산까지 기차통학을 하며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기에 이후 좋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그는 4년 전 古稀 기념으로 쓴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말고’라는 자서전을 소개하며 새해 소망을 들려줬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고즈넉한 커피숍에 앉아 새해에 해야 할 일을 쓰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천리가 되듯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칠다고 너무 쉬지도 말며 날마다 새롭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족과 그리고 모든 동문들이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表)

‘교육상’ 제정...우수 교수에 수여

매년 10명 내외 선정

모교(총장 鄭東泰)는 지난 12월 5일 재학한 교육에 헌신한 교

내 교수들을 선정해 올 2월 ‘서울대 교육상’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내를 비롯한 몇몇 단과대에서 우수한 강의를 펼친

교수에게 상을 준 적은 있지만 대학본부가 교육상을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강의평가, 교수평 등 최근 수년간 교육활동을 평가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가운데 매년 10명 안팎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패와 부상 1천만원씩을 수여할 계획이다.

첫 수상자 선별을 위한 후보자 접수 마감은 지난 12월 30일과 지났으며, 대학본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수장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교는 그동안 교수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은 많았지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공로를 평가하는 방법이 미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상 제정이 교육의 집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교 소식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공

경기도서 건설비 1천4백억 지원



모교와 경기도는 오는 2007년까지 수월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세운다.

지난 11월 22일 모교 鄭東泰총장, 경기도 尹鍾宰지사, 서울대수원시장이 등 관계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단지 내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공식을 열었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을 융합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고급 기술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 연구원에는 총 7개의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는데 나노전자소재, 바이오공학, 휴먼테크놀로지, 미래형 자동차, 유비쿼터스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모교는 교수 1백25명과 대학원생 2백여 명의 연구인력을 제공하게 되며, 경기도는 건설비 약 1천4백40억원과 향후 7년간의 운영비 2백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MBC, 농대에 10억 약정 교수 시상·강학금 중대



(주)문화방송(MBC·사장 崔文海)이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鎭基)에 발전기금으로 세달리며 10억원을 출연키로 약정했다.

지난 12월 27일 농생대 대회의실에서 교내의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BC 李鎭基기술본부장(사진 좌)이 李鎭基학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농생대는 매년 발전기금을 통해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을 낸 교수를 선정, 상록상·학술상·교육상 시상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MBC가 약정한 발전기금으로 이 사업을 또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법대 BK21사업단

인문사회 표창 받아

법과대학(학장 成慶寅) BK21사업단이 인문 사회분야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지난 12월 13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NGO활동기틀 위한 ‘공익·인권법 강좌’를 개설하는 등 공익·인권 관련 연구활동과 전 세계 법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한국법의 세계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동안 모교 법대 BK21사업단은 학술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했으며, ‘Journal of Korean Law’라는 영문저널을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논문과 저술을 얻어 발전해 국내외 법과대학, 연구소, 법학자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좌로부터 金道然학장, 崔海天교수, 鄭鍾圭이사장

신앙문화재단

교수 5명에 학술상 시상

신앙문화재단 鄭鍾圭(화학공학 48-52 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12월 14일 모교 공대 연지나 어하우스에서 제1회 ‘신앙공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鄭이사장은 이날 모교 공대 재건공학부 朴壽永(첨공공학76-80)·화학생물공학부 李鍾協(화학공학76-80) 공대 연구부(학공)·기계항공공학부 謝海天(기계공학81-85)·조선해양공학과 曹善鎭(조선공학82-86)·전기컴퓨터공학부 李道衍(전기공학83-87) 교수 등 모두 5명에게 상패와 함께 1천만원씩의 연구기금을 수여했다.

鄭이사장은 2004년 신앙학술정보관을 건립해 모교에 기증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 재단을 모교 내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모교 병원

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

모교 병원(원장 成相哲)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12월 23일 서울로 중로구 연건동 KOICA 사무실에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KOICA는 모교 병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협력 긴급구호대’ 구성 등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재난 발생 시 효과적 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과대학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개소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지난 12월 14일 관악캠퍼스 공대 39동 강당에서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張永烈)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鄭東泰총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경제는 사회 인프라와 국민 주택 그리고 해외 건설시장 등 잠재적인 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이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산업계에 과감히 더욱 혁신적인 기술이 융합하게 이전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소 설립에 기여한 산인노베이션 金炯珠(토목공학 46-50)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초 착공돼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이 연구소 건물은 모교 관악캠퍼스 내 2천여 평에 대형 구조 실험동 및 실험실, 전문연구실, 화상회의실, 멀티미디어 교육실, 국제세미나실 등을 갖추게 되며, 총 1백여명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金炯珠회장, 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勳(토목공학56-60) 부회장이 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이 내놓은 발전기금이 큰 기여를 했다.

중문학과 許成道교수

인터넷 강의 무료 개방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許成道(중문68-72)교수(사진)가 자기 자신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許교수는 지난해 초부터 ‘중국어 입문1’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 인터넷 웹사이트(basicchinese.snu.ac.kr)에 영상강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보통 대학에 개설된 유료 사이버 강의는 많지만 모든 강의를 직접 촬영해 무료로 공개하는 것은 許교수가 처음이다.

이 사이트에는 기본 중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는 교과과정이 담겨 있는데 본문의 새 단어와 응용 표현도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도

두 실이 사전과 참고서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許교수는 “서울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만큼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의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의과대학

학제 절충안 검토

최근 정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던 의과대학(학장 王圭彰)이 의대 학제(2+4)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4+4)를 각각 50%씩 병행 운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의대는 의외로 양성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의사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등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반대해왔다.

의대는 정부의 안을 수용, 절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이번 절충안이 기존 6년제 과정의 학생에게도 8년제 전문대학원 학생과 마찬가지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李)

동 정

수 상

▲**차英子**(국어교육46-50 WCPRR 회장)=최근 그리스 아테네 International ACADEMY로부터 2005년 명예 아테네상 수상. ISGW&A로부터 평화상·올림픽상 수상. 또 중국 베이징에서 WCP로부터 계관 시인상과 월계관 받음.

▲**印炳善**(철학54-58 철종생원사박물관장)=지난 12월 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보존관리부문) 수상.

▲**鄭良眞**(사학54-58 前국립중앙박물관장·경기대 석좌교수)=지난 12월 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상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 수훈.

▲**朴眞實**(의학54-60 대한산부인과학회·분회 부회장)=지난 12월 28일 서울 동송동 의대중앙회 참관회에서 수필집 '아마니와 노티'로 제1회 '李鍾求수필문학상' 수상.

▲**韓永惠**(사학57-62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지난 12월 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학

술연구부문) 수상.

▲**金鍾賢**(원지력공학63졸 모교 물리학부 교수)=지난 12월 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학술연구부문) 수상.

▲**李柱澤**(사학58-63 서울 송파구청장)=지난 12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인본인연합회로부터 제5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朴柱仙**(영어교육59-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분회 부회장)=지난 12월 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대부교동창회 송년회에서 제7회 자랑스런 부교인상 수상.

▲**金柱九**(영어교육60-64 부산대 명예교수)=지난 40여 년간 교육과 인재양성 그리고 다양한 국제학술활동을 펼친 공로로 최근 제48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인문과학부문) 수상.

▲**李道雄**(기약60-64 서울튜터당 상무 음악감독)=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인본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음악부문) 공로상 수상.

▲**趙政男**(화학공학61-67 SK텔레콤 부회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 경영대 상(사회공헌부문) 수상.

▲**李淑貞**(화학61-67 중앙대 교

수)=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인본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9차 예술문화상(미술부문) 대상 수상.

▲**李柱鼎**(대학원62-65 前성신여대 교수)=지난 12월 10일 성동고등학교로부터 2005년 자랑스런 성동인상(사회부문) 수상.

▲**金勳康**(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인본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9차 예술문화상(지역부문) 공로상 수상.

▲**宋寅範**(법학63-67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12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재경대전고등학교로부터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

▲**朴恩聖**(기약63-69 수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한양대 교수)=지난 12월 16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한국음악비평가협회로부터 제13회 음악대상 수상.

▲**蔣澤在**(건축64-68 원도시건축부사장)=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인본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9차 예술문화상(건축부문) 공로상 수상.

▲**楊興準**(화학공학65-69 LG생명과학 사장)=지난 12월 15일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한 2005년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 기업상 수상.

▲**尹增健**(행정65-69 금융감독위원장)=지난 12월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밀알회(회원사 장학회 회원 모임)로부터 '2005 자랑스러운 밀알인상' 수상.

▲**南永信**(법학67-71 국어문화원 동분부 회장)=지난 12월 20일 서울 한국인본재단에서 제17회 한국어문상(학술부문) 수상.

▲**韓主煥**(기계공학68-72 현대모비스 부회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자식경영부문) 수상.

▲**金鍾鉉**(건축69-73 한미파스너 사장)=지난 12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인 금상 수상.

▲**蔡 旻**(국문72-76 동덕여대 교수)=최근 국어학자 心岳 李崇寧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心岳 李崇寧 국어학자상 수상자에 선정.

▲**鄭克治**(화학공학72-76 오미아 이스트아시아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2월 7일 2005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대통령상 수상. 또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高聖姬**(치의학73-79 교치과의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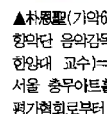
▲**李柱鼎**(대학원62-65 前성신여대 교수)=지난 12월 10일 성동고등학교로부터 2005년 자랑스런 성동인상(사회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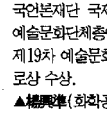
▲**金勳康**(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인본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9차 예술문화상(지역부문) 공로상 수상.



▲**宋寅範**(법학63-67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12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재경대전고등학교로부터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



▲**朴恩聖**(기약63-69 수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한양대 교수)=지난 12월 16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한국음악비평가협회로부터 제13회 음악대상 수상.



▲**蔣澤在**(건축64-68 원도시건축부사장)=지난 12월 14일 서울 한국인본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9차 예술문화상(건축부문) 공로상 수상.



▲**楊興準**(화학공학65-69 LG생명과학 사장)=지난 12월 15일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한 2005년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 기업상 수상.



▲**尹增健**(행정65-69 금융감독위원장)=지난 12월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밀알회(회원사 장학회 회원 모임)로부터 '2005 자랑스러운 밀알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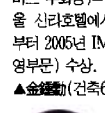
▲**南永信**(법학67-71 국어문화원 동분부 회장)=지난 12월 20일 서울 한국인본재단에서 제17회 한국어문상(학술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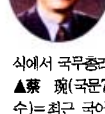
▲**南永信**(법학67-71 국어문화원 동분부 회장)=지난 12월 20일 서울 한국인본재단에서 제17회 한국어문상(학술부문) 수상.



▲**韓主煥**(기계공학68-72 현대모비스 부회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자식경영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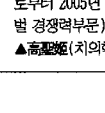
▲**金鍾鉉**(건축69-73 한미파스너 사장)=지난 12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인 금상 수상.



▲**蔡 旻**(국문72-76 동덕여대 교수)=최근 국어학자 心岳 李崇寧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心岳 李崇寧 국어학자상 수상자에 선정.



▲**鄭克治**(화학공학72-76 오미아 이스트아시아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2월 7일 2005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대통령상 수상. 또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高聖姬**(치의학73-79 교치과의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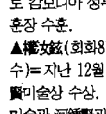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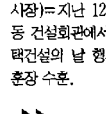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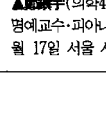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정.

▲**盧岐鎭**(AMP 50기 LG화학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글로벌 경쟁력부문) 수상.

▲**李基泰**(AMP 56기 삼성전자 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경영원으로 부터 2005년 IMI경영대 상(기술력 신부문) 수상.

▲**金正中**(AIP 15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실회관에서 열린 200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급탑 산업훈장 수훈.

▲**鄭漢宇**(의학45-49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파아니스트)=지난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자원봉사대회에서 서울시 표창장 수상.

▲**徐敏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주민 대상 의료봉사과 의사연수생 국내 연수 등을 도와준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재건 훈장 수훈.

▲**鄭敏玟**(화학81-85 국민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제5회 韓國美術상 수상. 이 상은 서울시립미술관 韓國美術관이 2001년 홍익대를 장년회원으로 퇴직금으로 제

에서 열린 한국에토번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朴英復(상학60-66 박영준회계사무소 대표·분회 감사)=지난 11월 18일 군산 중·고교 총동창회 회장에 취임.

▲文澤坤(상학64-72 한국공인회계사의 상근부회장)=지난 11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새종출에서 열린 한성중·고교동창회 '한성인의 밤' 행사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

▲鄭光和(물리64-7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12월 8일 임기 3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에 선임.

▲崔敬亨(물리교육68-72 한국교원대 교수)=지난 12월 16일 순천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

년의 회장에 선출.
▲徐春弘(행정69-73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지난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장관급)에 임명.
▲張潤基(법학69-73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지난 12월 14일 정무직 장관급으로 직급이 바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金榮愛(건축71-75 서울포럼 대표)=지난 12월 21일 건설기술·건축문화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金周成(AMP 30기 前교오통공를 부회장)=지난 12월 5일 임기 3년의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취임.

▲朴英復(ACAD 48기 前대한공법률홍보원 회장·환경시대신문 주필)=지난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부총재에 취임. 또 사단법인 3-1동지

▲金容濟(정치71-75 인하대 교수)=지난 12월 2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柳一相(신대원74를 전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지난 12월 1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취임.

▲金光測(대학원73-78 아주대 교수)=연구년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에 선임. 또 10월 아주대 경

영연구소장에 임명.

▲鄭榮亨(경제74-78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사용위원회)=지난 12월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

▲鄭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지난 12월 13일 서울 성북동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7대 회장에 선출.

▲金周成(AMP 30기 前교오통공를 부회장)=지난 12월 5일 임기 3년의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취임.

▲朴英復(ACAD 48기 前대한공법률홍보원 회장·환경시대신문 주필)=지난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부총재에 취임. 또 사단법인 3-1동지

회 지문위원에 위촉.
▲김삼백(HPM 11기) 빌명 김도 각, 한국불교청년복지재단이사장)=지난 12월 월간 '문화세계'에 '자녀들', '비라보기', '한

얼의 빛' 등의 시 작품이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

▲尹鍾學(HPM 16기 국군외무사령부 의료관실장)=지난 12월 1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제20대 교장에 취임.

▲李德百(국어교육46-49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重峯趙憲선생기념사업회장)=최근 중봉사상연구원 개설.

▲李鍾玉(의학48-54 고려대 명예교수·국책혁신 연구소 한국후원회장)=지난 12월 5일 서울 조산호텔 회경전에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李炳允(치의학51-55 이치과의원장·전북지부치대동창회장)=지난 11월 21~28일 중국 운남성 파리사에서 치과의료봉사활동 펼침.

▲李判俊(상학58-72 대구가톨릭대 교수)=지난 12월 8일 대구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러시아 초청 연주를 위한 '코리아 챔버 콰이어' 이름 변경 연주회 개최.

▲鮮于仲德(토목공학59-63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설추진위원장)=지난 12월 1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용산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金春玉(회화64-68 한국전임미술협회 이사장)=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서울 안국동 갤러리 물에서 '자연·관

계성'을 주제로 작품전 개최.

▲趙政愛(응용미술64-68 인경관화광방 대표)=지난 12월 1~15일 서울 서초동 갤러리 천에서 개인전 개최.

▲喜喜英(회화64-68 그로리치화랑 대표)=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평창동 그로리치화랑에서 '드로잉을 통해 본 한국 현대미술 60년사 V부'를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전 개최.

▲曹 埴(물리교육68를 한남대 교수)=지난 12월 16일 대전 스포피아호텔 대연홀에서 회관을 맞아 '자성재료학' 출판기념회 개최.

▲朴和映(회화73-77 강남미술협회·한국화이트헤드화의 이사)=지난 12월 13~24일 서울 청담동 갤러리 PIC에서 '아

름, 혹은 이름아는-꿈나루'를 주제로 제10회 개인전 개최.

▲金宗宗(회화74-81 모교 동양화과 교수)=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 서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생명의 노래'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李潤柱(회화76-80 삼삼아트 대표·한국미술 부이사장·경희대 겸임교수)=지난 12월 21~30일 서울 서초동 갤러리 호에서 작품전 개최.

▲梁承榮(기악77-84 원광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오는 1월 2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드보르

자크 등의 작품으로 앙상블 예전 정기연주회 개최.

▲李忠範(법학78-82 사단법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12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해복지 후

원 자선다녀쇼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김성원(외교83-90)-손정아 씨=1월 21일 13시.
*조진현·변경자(지구과학교육 87-91)씨=2월 6일 18시.

▲김성원(외교83-90)-손정아 씨=1월 21일 13시.
*조진현·변경자(지구과학교육 87-91)씨=2월 6일 18시.

▲김성원(외교83-90)-손정아 씨=1월 21일 13시.
*조진현·변경자(지구과학교육 87-91)씨=2월 6일 18시.

명사

학측

(동정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족을 밝힐 등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메일 : snu@korea.com 또는 ahseop@snu.ac.kr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건강을 지킵시다

매일 2~3ℓ 수분섭취로 결석 예방

요로 결석은 요로 계통, 즉 신장, 요관(신장과 방광을 잇는 관) 또는 방광의 결석을 말하지만 신장 결석이라 해도 무방하다. 요로 결석은 실제로 매우 흔해서 당게는 남자의 약 10%, 여자의 약 5%가 평생 한번 이상 증상이 있는 신장 결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며, 비뇨기와 입원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흔한 질환이다. 주로 20~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잘 생긴다.

대부분의 요로 결석은 신장에서 생겨 신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3군데 중 한 군데에 걸려 증상이 나타난다. 결석이 위쪽 요로계에 걸리면 주로 허리 위의 어느 한쪽 옆구리에 갑작스런 심한 통증이 유발되며 구역,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결석이 아래쪽 요로계에 걸릴 경우 주로 어느 한쪽 하복부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생기는데, 이때도 위쪽 옆구리를 두드리면 알 수 있다.

결석의 원인은 아직도 명쾌한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모가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도 있을 확률은 높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탈수가 잘 생기는 환경에서 생긴다. 탈수가 잘 생기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잘 생기며, 증중 환자처럼 오래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잘 생긴다. 요로 결석 성분의 대부분은 칼슘염에 의한 결석이다. 탈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변 중에 다량 또는 농축되어 존재하는 칼슘 등이 결정화되면서 결석이 생기게 되는데, 유전적인 경우 이외에도, 짜게 먹는 식사 습관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분섭취는 결석의 종류에 관

계없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보통 하루에 2~3리터의 수분섭취를 권장하는데, 밤이나 국을 통한 수분섭취도 있으므로 1.5~2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잘못된 식사 중의 하나는 맥주를 마시면 결석의 배출이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맥주를 마시면 소변량은 증가하지만 체내의 칼슘은 더 조정되는 면이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식사 중 칼슘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金 廷 勳
(외환88-94)
모교 병원 강남센터
신장내과 교수

결석 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지나친 저칼슘식이 결석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어 지나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나 요산(주로 단백질에 포함)이 많은 음식이나 수산(홍차, 초콜릿, 시금치 등)이 많은 음식은 그 성분의 결석이 있었던 사람일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대개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5년 내에 절반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재발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연락처 : 2112-5500)

나의 건강법

마라톤 16번 완주, “오늘도 나는 달린다”

沈 洋 弘(국문84-71)탈린트



알아나가기 힘들었을 정도고, 졸업한 후에는 배가 딱딱해서 숨을 쉬어도 뱃가죽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안되겠다! 살려낸 뒤야 했다.

90년대 말, 여행에서 알게 된 대한항공 사무장(김부근 씨)과 처음 양자편에 나왔다. 1950년 여름, 민둥산을 넘어 하늘 밑의 첫 날이 우는 집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피난 갈 때 걸었고, 이듬해 1·4후퇴 때는 얼

어붙은 문경새재를 걸어서 넘었다. 그리고 1962년 1월 전해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 사관학교 적남고에서 진해 우체국까지 단독 군장으로 구보를 했던 기억이 났다.

이것이 달리기와 육체적 기억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2백m를 못 뛰다가 차츰 한강 쪽으로 진출해 영동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와 풍작대교를 거쳐 한강철교를 지나 여의도를 통과하고 행주대교를 돌아오게 됐다. 물론 한참 연습할 때 야기다. 비가 오면 다리 밑에서 몸을 숨겼다가, 또 겨울에 언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뛰고 또 뛰었다.

이렇게 해서 10km, 하프코스 대회는 빼고 2011년 충주호를 일주하는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다. 지난해 가을 춘천마라톤 대회까지, 풀 코스를 16번 완주했다. 뛰는 동안 3.4kg의 몸무게가 감량되고, 그 아픈날까지 체지방이 타서 그런지 온몸에 균형을 편 것처럼, 몸이 후끈하고 뜨뜻하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건강을 지키고 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전주-군산 1백리 길을 달리는 전군마라톤이다. 뽕밭마라도 밟는 평지로)을 밟았다. 당연히 나의 건강은 무너졌다. 군대 가기 전에는 화랑대방 의자에서

있었다. 그리고 1962년 1월 전해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 사관학교 적남고에서 진해 우체국까지 단독 군장으로 구보를 했던 기억이 났다.

이것이 달리기와 육체적 기억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2백m를 못 뛰다가 차츰 한강 쪽으로 진출해 영동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와 풍작대교를 거쳐 한강철교를 지나 여의도를 통과하고 행주대교를 돌아오게 됐다. 물론 한참 연습할 때 야기다. 비가 오면 다리 밑에서 몸을 숨겼다가, 또 겨울에 언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뛰고 또 뛰었다.

이렇게 해서 10km, 하프코스 대회는 빼고 2011년 충주호를 일주하는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다. 지난해 가을 춘천마라톤 대회까지, 풀 코스를 16번 완주했다. 뛰는 동안 3.4kg의 몸무게가 감량되고, 그 아픈날까지 체지방이 타서 그런지 온몸에 균형을 편 것처럼, 몸이 후끈하고 뜨뜻하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건강을 지키고 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전주-군산 1백리 길을 달리는 전군마라톤이다. 뽕밭마라도 밟는 평지로)을 밟았다. 당연히 나의 건강은 무너졌다. 군대 가기 전에는 화랑대방 의자에서

추억의 창

夫 庚 生 (농생물60 64)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농업과학회 회장

기난한 '유학생' 곤충 여행도 겨우 한번 아내와의 첫 만남 딸기밭 추억 생생

필자는 1960년대 초에 대학생활을 보냈다. 대학에 입학하자 2주일만에 4·19혁명을 겪었고 일년 후에는 5·16군사정변을 치르는 혼란 속에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모든 물자나 환경이 여의치 못해 대학생활 그 자체도 쉽지 않았다.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에 대한 예기로 시작된 식목일의 입학식도 특이한 출발이었다.

4·19혁명을 치르고 1학기를 다 끝내 갈 무렵인 7월 19일에는 농촌계몽에 앞서 도시민들이 농촌현상을 눈 지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신념과 실정으로 당시 농대 재학생 4~5백여 명이 여학생들을 앞세우고 도보로 서울까지 행진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서울에 도착해서도 여관 같은 곳에 갈 형편이 못 돼 당시 동생들 중에 있던 문리대 교정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해산했다.

당시 우리 나라 말로 된 대학교재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영어나 외국어로 된 소위 원서라는 책도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라 같이 있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



3학년 때 강원도 대관령과 오대산으로 떠난 재집 여행 중 동해에 걸췌를 친 모습. 현재 필자.

운 때였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인 196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당시 대만에서 유학 온 3명의 동료들은 이미 해적선의 원서들로 공부했던 것을 보고 많이 놀란 기억이 난다. 그만큼 그 당시 우리에게 원서란 매우 생소하기도 했지만, 원서 사본들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유입하게 구입한 원서가 곤충생리학(Insect Physiology) 책이었고, 그것이 인연이 돼 결국 필자 인

생을 곤충생리학과 화학생물학 연구에 다 바치게 됐다.

무성한 잡초 속에서도 작은 풀꽃들이 피어나듯이 어렵고 급박한 가운데 대학생활을 보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즐거운 추억들도 있다. 농생물학과는 여름방학마다

식물병과 곤충을 채집하는 여행으로 교수님들과 함께 들과 산을 헤집고 다녔다. 당시 경비도 부담이 돼 여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참여하는 동창들이 많지 못했다. 필자 역시 제주에서 온 '해의유학생(?)'이라 3학년 시절에 겨우 한번 참가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 유학에서 갓 돌아오신 두 분의 젊은 교수님들과 함께 대관령, 오대산, 강릉으로 재집여행을 갔었다. 그런데 오대산에서 곤히 잡을 자

고 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한 밤중에 천막들을 거둬 월경지로 침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는 미국 마네스타대와 학술 교류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주로 농대, 공대,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다수의 교수들이 유학 갔다 왔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았다. 그 계획의 일부로 농대는 교실과 기숙사가 서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일년을 보내게 돼 있어 기숙사가 우리의 생활 전부를 점령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 기숙사 생활이 주변의 하숙집 생활보다 나은 면이 많았다. 그런 기숙사 생활의 일부로 매년 6월 딸기밭에 치르는 상록추제는 당시 학생들의 이성교제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었던 일은 초청된 여학생 수와 농대생들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주변 하숙집이나 자취방에 누워 펴놓고 있는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필자도 그런 경우로 지금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거의 40년 인생을 같이 꾸려 나가는 행운을 얻었다. 지금 그런 추억이 서린 딸기밭들은 모두 낡은 도시 모습들로 대체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곳을 지날 때면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온 길을 뒤돌아보게 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의 생활과 값진 우리 부부의 삶의 출발점이 된 농대 4년의 기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진수였다.

신 간

뇌졸중 치료

동산이 으뜸이다

一禹在九 지음



동 부에 트 나생명보함·동부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한 禹在九(상학 55-61) 동 문의 처칠한 투병

으로 중증 재활에 100% 성공한 이야기. 禹동문은 이 책에서 "중증 치료에는 운동보완 특권이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걷고 또 걸었다. 그 결과 재활에 성공해 인간 승리의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다. 걷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밝게 가지면서 누워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분명히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매일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적판·값 12,000원)

ACAEMIC GENEALOGY OF PHYSICISTS
一張水榮 著
포항공대 출장을 역임한 전자전 기공학과 張水榮(전기공학 57-61)



교수가 1900년대로 시점으로 양자역학이 학문적 체계를 갖춰 나가는 과정

에서, 물리학자들의 기여와 학문적 연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영어로 20세기와 21세기 세계적 물리학자 3백50여 명에 대한 학문적 계보와 학자들의 인적 사생활과 업적을 기술했다.

독창성과 연속성이 강조되는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유익한 과학사적 성격의 책이다. (서울대학교출판부·값 20,000원)

디스토피아

一洪向和 著



보적 지성과 민주적 세력의 좌경화에 대한 최초의 본격 비판 소설. 이 책은 잘못된 시대정신, 주체 敎條, 중오상, 새주주의 자식인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洪동문은 에필로그에서 "첫째,

젊은이들을 좌경으로 오도한 지식 인들의 수법을 밝혀 너 이상 그런 수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오도된 젊은이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침묵하는 다수의 젊은 사회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요성이 십자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집필이유를 밝혔다. (랜덤하우스중앙·값 8,500원)

방송인 김인규의

공영방송 특강

一金仁圭 著



KBS 공채 1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위성통신과 원, 취재주간, 보도국장, 부산방송 총장직, 특임 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한 金仁圭(정치 69-73 본보 논설위원)이사가 방송현장에서 보낸 지난 30여 년을 정리해 공영방송의 실체를 분석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한 책.

이 책은 송이사가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좌교수로서 방송영상정책에 대해 강의해온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1부에는 우리 나라 방송정책의 변천사, 영상매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TV뉴스 취재·제작 시스템, 국제뉴스의 실태 등을 담았다.

2부에는 공영방송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서 선정성과 공정성 문제만을 별도로 묶어 깊이 있게 다뤘다.

3부에서는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까지 우리 나라 방송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살펴본 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지상파 위기관과 공영방송의 재원 정책, 세계적 공영방송과의 비교, 그리고 미국 상업방송의 미디어 제국주의로부터의 대응 방안 등 공영방송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조망했다. (커뮤니케이션서적사·값 15,000원)

Koreanische

Erzählungen

一李光洙 옮김



모교 독어교육과 李光洙(독어교육 66-70) 교수가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사전에 전시된 한국문학전집(Koreanische Erzählungen)을 독일어로 옮겼다.

이 선집은 독일 최대 출판사의 하나인 dtv에서 출간했으며, 11월에 2권이 나왔다. 오스트리아방송(ORF)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선집이 2005년 11월 베스트셀

러 10권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선집에는 이호철(판문점), 김원일(기막), 서정인(구항), 황석영(이웃 사람), 김영하(크리스마스 캐럴), 김성일(물속의 방), 한강(내 여자의 열매), 공지영(갯가에 남은 음성)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있다. (독일출판사 dtv·값 8,850)

임진왜란과 김성일

一金明俊 지음



임진왜란 전에 조선의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와서 일본이 참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던 김

성일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은 책. 장기간을행 전무, 정은신용가드 사장 등을 역임한 金明俊(경영 62-68)등본이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일의 학문과 신료 생활, 임진왜란 발발 후 1년 동안의 그의 활동 등 거의 알려지지 않은 면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다.

김성일이 받았던 오해를 풀고, 우리 조상들이 임진왜란을 대비하면서 행했던 일들 중에서 잘못 알려지고 가려진 부분을 제대로 밝히고자 했다. (백산서당·값 20,000원)

동문 기고

安重根의 사를 '표절자'로 만들지 마라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어느 산중 마을로 피난을 가 낚시나 논밭에서 일하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때로는 가족 전체가 쑥을 캐어 쑥밥을 지어먹으면서 지냈다. 그보다 앞서 도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학교에서는 수업은 조금만 시키고 학교 주변 논밭에서 일을 많이 했고, 심지어 산에 가서 죽은 소나무 뿌리를 캐어만 했다. 전투기에 쓸 기름을 쥘다는 목적이라고 했다.

드디어 허방의 날이 왔다. 모두 平亂이라고 하면서 농악단을 앞세우고 기뻐했다. 그 해 9월에 내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산골마을에 서당이 문을 열었고 현 노인이라는 스승에게서 推衍文이란 한문책을 배우게 됐는데, 이 책은 인물도덕에 말할 것도 없고 자연현상에서 관측되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표현해 방긋이 웃으면서 공부를 했다. 더구나 평형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 對句를 많이 쓰고 있음이 흥미로웠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와 달은 하늘의 두 눈이요, 풀과 나무는 땅의 못될 이보다.’ ‘달이 뜨니 하늘이 눈울 뜨고, 산이 높이니 땅이 머리를 들었다.’ ‘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뱀이 나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로다.’ ‘개가 짖으니 손님이 문에 도달하였도다.’ ‘사람이 술을 마시며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풀을 먹으며 입이 푸르더라.’ ‘꽃은 웃어도 그 소리 듣지 못하며, 새는 울어도 그 눈물 보기 어렵도다.’ ‘가느다란 비는 연못 가운데를 보고 일며 비풍은 나무 끝을 봐야 안다.’ ‘홍소를 부니 마른 대나무가 말을 하고, 북을 치니 죽은 소가 울도다(홍소는 대나무로, 북은 쇠가죽으로 만드니).’ ‘할아버지가 관을 벗으니 머리가 황홀해 드러나고 여자가 누워서 불을 피우려고 입으로 바람을 부니 입술이 파주해지도다.’ ‘꽃은 다시 필일이 있으나 사람은 다시 젊어지지 않는도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서 가시가 돋는다)’였다.

李承晩대통령이 이 추구문에서 몇 문장을 인용해 담화를 발표했을 때 나는 무척 기뻐다. 가령 ‘春水滿四澤이요 夏雲多奇峯이라(봄비는 사방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 위에 가득하구나)’ ‘家貧思萬善요 國難思良相(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나는도다)’ 그 외에 ‘人心朝夕變이요 山色古

公常新 나머지 옥중에서도 휘호로 남겼으리라 믿는다. 그 붓글씨가 신문과 TV에서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50년 이상 아무도 이 말의 출처를 바로 잡아주지 않아서 답답하기 짝이 없었던 나는 드디어 몇 년 전 중앙고전 강의를 명성이 자자한 D선생에게 물기로 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Y대하고 중국문학 교수로 있는 그의 부인의 연구실로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은 솔직히 자기 남편도 모르니 일본에서 출판된 ‘萬辭苑’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리하여 서초동 국립도서관까지 가서 ‘荊棘’을 찾아봤으나 허탕을 치고, 할 수 없이 과거 미국에서 함께 공부한 중화민국의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천신만고 끝에 유명한 교수들에게 물어 이 명언과 함께 다른 명언, 즉 ‘一日不讀書, 百事荒蕪’ ‘士大夫三日不讀書, 則文不理於胸中, 對鏡視面可憎, 向人談話無味(하루라도 글을 쓰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망무해진다. 사대부가 사흘만 책을 읽지 않으면 문리가 마음속에서 고갈하지 못하고 거울을 보아도 얼굴이 가증스럽고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깨달은 어언이 무미하구나)’를宋나라 시대의 서예가이며 화가인 黃山谷(호는 黃山谷, 1040~1105)이 쓴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필자는 우리 나라 한학자들까지도 이 글이 안희사의 말이라고 신문에 쓰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推衍文을 공부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닐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안희사가 붓글씨를 쓰고 말미에 작거라도 ‘推衍文에서’라고 인용했음을 적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앞에 가시가 돋지 않도록 열심히 책을 읽어보자!



金 順 信
(영양교육51일)
아주대 명예교수

今(사람)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하나 자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도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安重根의 사가 옥중에서 붓글씨로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이라고 썼을 때는 그와 내가 동시대인임을 느낄 정도로 기뻐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 모두들 이 세상에서 맨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안희사라고 믿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하다. 정말 그 위대한 말을 그가 처음으로 말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가. 그 도 이 추구문을 공부하고 이 말에 너무

66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속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推衍文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99

나이는 숫자에 불과 ... 받아들이자

요즘을 부쩍 신문이나 TV를 통해 노년 문제가 부각되면서 노년의 건강, 장수를 위한 식생활 등 노년의 삶에 대한 기사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이키라고 생각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지하철 탈 때 신분증 보여 달라는 것을 봐도 나는 노년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철순’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수레바퀴가 걸려있었으니 아! 소리 한번 크게 질러

보지 못하고 노인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물에 걸린 꼬리가 제 아무리 힘이 좋아 한걸음 어찌 빠져 나올 수 있으며,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며 뱀이 좋게 유선 염으로 아름답게 헤엄치면 과거를 떠올릴 땐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 잘 챙겨 남의 생을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人生七十古來稀’라 하여 옛부터 70세를 살기 힘들다 했는데, 70을 살았으니 내일 세상을 떠나 해도 여한이 없으련만 사람의 평균수명이 80 몇 살이라고도 하고, 병들지 않으면 전수가 1백 20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점점 솔직해져서 아직 더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보람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절실해진다. 독수리의 기개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거미처럼 희색만 하고 대대려갈 것인가?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독수리는 70세를 사는데, 모든 독수리가 70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40세쯤 되었을 때 두 갈래 길에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 숙고할

한다고 한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피나는 각고와 30년을 더 살 것인가?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오래 살겠다는 결심이 서면 높은 산 바위 위로 올라가서 바윗돌에 자신의 부리를 모두 찍어 부수고 나면 새 부리가 생기고, 이 새 부리로 남게 될을 모두 뽑고 발톱을 모두 뽑아 내는 고통을 겪고 나면 새 날개와 새 발톱이 생겨서 이때부터 다시 30

여미 거미는 걸집만 남은 새 홀리가는 넷물에 걸려 거미의 일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극과 극의 생활사가 있듯이 사람의 일생도 주어진 환경과 마음먹고 행동하기에 따라서 노년이 활기 차게도, 초라하게도 되는 것 같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들리는 이 음은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린과 동시에 사고 없이 다시 살아가는 것을 축하해 주는 북음 성격 같은 안위를 준다.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아직도 부끄러움을 내리는 인생 행로에서, 차한 밖으로 내다보이는 눈썹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게 독수리의 기개를 거울삼아 몸과 마음을 꾸준히 연마해 핸들을 잡은 내 팔에 힘이 있고, 기쁜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감성이 남아 있어 현수를 다한 도착 지점에서 삶을 멋있게 완주한 기쁨을 맛보아 할 것 같다.

‘엄마! 소령 공무부에 왔던 심사위원인 영국의 어떤 귀족부인은 87살인데 너무 맑고 정정해, 엄마도 아직 젊었어...’ ‘엄마! 안식교인인 어떤 할머니는 102살에 운전면허를 갱신했대. 그러니 엄마는 노인이 아니야.’ ‘말이 열심히 행거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아노노를 늘 녀석들도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미워 짐작하며 2006년의 새해를 맞는다.



李 仁 子
(가정교육65-59)
건국대 명예교수
서경대 석좌교수·시인

년 동안 독수리의 위세를 떨치며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거미는 온몸을 통통하게 살찌게 한 후 새끼를 배고 새끼를 낳은 후에는 저축해 놓았던 영양소로 새끼를 키우고 마침내 새끼가 다 자란 후에는

66

마음 먹기에 따라서
노년이 활기차게도,
초라하게도
되는 것 같다

99

동창회를 읽다

문화의 깊은 향취 묻어났으면...

2006년 새해를 맞아 연재나처럼 연초에 걸맞은 새로운 기원과 각오로 마음을 채운다. 유독 올해는 이 글을 계기로 모교에 대한 생각과 추억을 새삼 떠올려 보며, 짧은한지 정확히 10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풍족히 누렸던 대학생활에서 벗어나 힘겹게 냉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소위 'S대'라는 타이틀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는 눈에 띄는 프로파일이고 때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한 적도 있었다. 현대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학벌'이란 것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서울대'는 누가 뭐라 하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임에 분명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선입견과 견제와 질시도 적지 않다.

그런데 동창회보를 바라보고 있는 필자의 눈 또한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동문들이 제시한 좋은 정보, 지식과 함께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님 이하 동창들의 소식들로 가득 찬 동창회보는, 나에게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되살리는 한편,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하는 위축감 또한 안겨준다.

물론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누는 것이 그 임무다. 하지만 문화와 공연계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 목석과 비뚤은, 이 사회의 문화적 향취가 더욱 깊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서울대인들의 동창회보에서 먼저 그것을 실현해줬으면 한다.

21세기는 문화 트렌드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사회의 모든 분야는 철학과 문화가 밀접하게 되어있고 견고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가 결여된 기술과 정보는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지 않았는가.

문화는 물이나 산소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한다. 맑은 물이나 산소와 마찬가지로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며 존재 이유이다. 비록 생계에 직접적인 영



金振伊
(국악92-96)
통기회사 대표

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제적 부산물도 아니어서 그동안 뒤로 밀려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서 생명이 위협받듯이 문화가 사라지면 사회가 위협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람의 따뜻한 온정과 문화적 향취를 더욱 깊이 담아내는 새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의 소홀히 동창회보에서 먼저 이뤄졌으면 한다.

권위와 경직이 아닌 유연함이, 단순한 소식과 자랑보다는 함께 승수와 있다는 공감대가, 그리고 문화적 컨텍스트로 인간의 깊이를 담아내는 서울대동창회보가 되었으면 하는 다소 주제 넘는 생각을 해본다.

회보 제작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많은 면에서 너무도 빨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학은 이제 학습과 연구를 위한 순수기능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문기술과 적응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내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공동체적인 문화적 욕구를 실현할

대사회는 삶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인정되는 시대가기 때문에 지난 세기에 우리의 삶을 대변해왔던 잘못된 의식을 새롭게 조망하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할 시험이 되었다. 따라서 동창회보는 우리 사회나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담고 이를 우리 동문들에게 진솔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동창회보는 우리 대학의 문화수준을 반영한다. 그리고 우리 동문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창회보가 인간중심의 대학 건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창회보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동문 구성원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회보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동문들 개인의 다양성을 담아 조화를 이루게 하고,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 계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질 좋은 용광로와 같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기를 벗어나 동창회보는 인고의 세월동안 동문들이 쌓아온 은근함과 끈실함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넓고 넓은 세상으로 보다 활자적 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회보가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 모두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매년 동창회보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격려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李永萬
(HPM 1471)
은평치과의원 원장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문화는 개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에서 대학인의 무한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안팎에서 동창회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의 생각과 느낌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방향과 생산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통대이다. 학내 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안에 대해 의견을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왔다. 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2005년 11월 납부자 / 연회비: 이사 (05. 9. 15~9. 30) · 일반 (05. 9. 23~10. 4)
원내 숫자: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李福海=100만원
△부회장 李中中=50만원
△부회장 李東一=100만원
△부회장 許鍾奎=100만원
△부회장 金明子=50만원
△부회장 鄭大哲=50만원
△부회장 宋 昐=50만원
△부회장 李敏善=50만원
△부회장 金鍾基=100만원

상임이사

△李相國 새대동창회장=20만원
△金順泰 신대동창회장=20만원
△李煥堯 한대동창회장=20만원
△金在權 ACPM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이사 50만원) △곽성문 연문회
△김경중 법대회 △김낙두 약대회
△류재훈 차대회 △박 철 삼대회
△박명구 AMP회 △박종수 문리회
△배길한 법대회 △박종상 삼대회
△오상길 법대회 △오종남 법대회
△유광준 공대회 △이종기 삼대회
△최각구 문리회 △하광호 법대회
△하양숙 간도회 △하철용 법대회
△함인화 미대회 △황병기 법대회

(일반 20만원) △강광식 AMP회
△고문석 공대회 △김홍구 사대회
△고준호 차대회 △고준석 공대회
△곽호신 의대회 △구승엽 의대회
△김옥배 공대회 △김 훈 공대회
△김 희 공대회 △김경환 의대회
△김국호 공대회 △김대익 공대회
△김동원 법대회 △김동준 공대회
△김명중 AMP회 △김무우 ACM회
△김재국 차대회 △김상현 공대회
△김상효 농생회 △김선규 ACM회
△김성만 AIC회 △김성우 공대회
△김소문 미대회 △김수숙 농생회
△김순덕 사대회 △김영준 공대회
△김영호 자연회 △김옥주 의대회
△김용담 법대회 △김용진 차대회
△김원배 농대회 △김원일 농대회
△김원재 사대회 △김은경 유대회
△김은상 경영회 △김은진 사회회
△김민규 공대회 △김진수 사대회
△김임권 AMP회 △김재민 GLP회
△김정복 사대회 △김종석 연문회
△김창준 대법회 △김철순 농대회
△김태국 AMP회 △김병태 사대회
△김현덕 사대회 △김현진 의대회
△김형남 가정회 △김홍철 AMP회
△김희갑 연문회 △남병홍 행회회

△노동일 HPM회 △노태국 공대회
△노원주 농생회 △민창기 삼대회
△박갑태 공대회 △박규희 차대회
△박근영 공대회 △박명환 약대회
△박상훈 사회회 △박상현 경영회
△박석원 농생회 △박석희 농대회
△박세진 가정회 △박순화 삼대회
△박은숙 의대회 △박은진 약대회
△박종민 농대회 △박지훈 차대회
△박태동 ACM회 △박수미 의대회
△배재광 법대회 △사대일 문리회
△서용환 대법회 △서은희 연문회
△소태상 공대회 △소호성 유대회
△소동식 공대회 △소영선 공대회
△소인익 차대회 △소삼철 공대회
△소삼보 공대회 △안영호 공대회
△안병민 의대회 △안재기 미대회
△여명태 농생회 △여정일 문리회
△오문숙 유대회 △오은경 사대회
△유우석 미대회 △유재현 ACM회
△유은실 농생회 △유재일 의대회
△윤철로 법대회 △윤철진 공대회
△이광진 의대회 △이기정 문리회
△이동근 농대회 △이동철 법대회
△이두환 차대회 △이정진 사회회
△이만규 사대회 △이민정 유대회
△이병국 ACM회 △이병영 자연회
△이병현 GLP회 △이봉근 자연회
△이성기 공대회 △이성기 농생회
△이성진 농대회 △이성은 미대회
△이성재 사대회 △이세용 경영회
△이우용 농생회 △이우주 의대회
△이승원 AMP회 △이원하 APC회
△이승수 사대회 △이우영 법대회
△이원준 AMP회 △이유리 가정회
△이원준 사대회 △이은주 공대회
△이원철 유대회 △이정수 ACM회
△이정오 공대회 △이정현 공대회
△이진수 약대회 △이진원 공대회
△이창민 사대회 △이현규 사대회
△이형식 차대회 △이홍지 법대회
△임기정 차대회 △임병환 SGS회
△임한수 차대회 △장기봉 AMP회
△장익태 차대회 △장인경 미대회
△전찬성 공대회 △전덕영 자연회
△전병우 의대회 △전태원 사대회
△전현태 공대회 △정명서 ACM회
△정병현 AIC회 △정보순 SGS회
△정영남 법대회 △정재훈 자연회
△정지열 공대회 △정태승 공대회
△정효수 차대회 △조 민 문리회
△조동일 삼대회 △조갑선 AMP회
△조신관 공대회 △조용국 법대회
△주현채 차대회 △차영점 공대회
△차영아 미대회 △채희술 AMP회
△최재자 간도회 △최법진 공대회
△최선숙 가정회 △최성광 공대회
△최수환 공대회 △최영래 사회회
△최원도 AIC회 △최원태 ACM회
△최해관 경영회 △최재기 사회회
△한인수 AMP회 △한정혜 유대회
△한진성 미대회 △허남철 사대회
△하진국 공대회 △현용순 미대회

△홍 번 농대회 △홍국의 문리회
△황능문 공대회 △황능운 AMP회
△황인수 AMP회 △황정옥 사대회
△황중국 공대회 △황지환 의대회

이 사

◆인문대 △조승래회
◆사회대 △이성희회
◆건축대 △이홍자회
◆공대 △권수영회 △김덕재회
△김휘준회 △박익철회 △박순지회
△박태권회 △설영희회 △여성준회
△이동국회
◆농대 △이성희회 △조차춘회
△한갑준회
◆문리대 △문병호회 △오거돈회
△정철현회 △한영우회
◆미대 △은영규회
◆법대 △고영환회 △공영규회
△김병학회 △김윤옥회 △나경식회
△노신영회 △양동근회 △이세훈회
△이승우회 △이태정회 △전봉호회
△조규창회 △조승우회
◆사대 △이규석회 △정주철회
△최희두회 △최준범회
◆상대 △강석권회 △김근태회
△김무정회 △나진원회 △박노영회
△박병윤회 △박석진회 △박홍기회
△이국희회 △조문재회
◆수외대 △유병문회
◆약대 △안승희회 △유충규회
△김영준회
◆의대 △김근식회 △김병우회
△박상훈회 △서정철회 △이계영회
◆상대 △박옥련회 △정형남회
◆신대원 △김희옥회
◆대법원 △김진원회
◆AMP △차준근회
◆ACAD △송영길회

일 반

◆인문대 △박상필회 △박종현회
△손정현회 △이병규회 △이수형회
△이홍근회 △조호준회 △최만민회
◆사회대 △김기성회 △김미라회
△김영남회 △김재욱회 △김진하회
△남기성회 △남기국회 △배준영회
△서용욱회 △서병재회 △여효상회
△정현출회 △정성진회 △최영희회
◆자연대 △강부원회 △권혁우회
△김광우회 △김용우회 △김옥환회
△이정형회 △이호선회 △조진호회
△최미경회 △하영우회
◆간호대 △강영아회 △김순결회
△김은진회 △박인숙회
◆경영대 △김영규회 △고광호회
△권정현회 △김병욱회 △김용진회
△김현승회 △서승원회 △임철현회
△이기원회 △이성우회 △전정호회

△홍수원회 △홍수연회
◆공대 △김태우회 △김준우회
△김대식회 △김대익회 △김경권회
△김용환회 △김재봉회 △김재수회
△김재현회 △김정철회 △김종영회
△김진수회 △김종원회 △김형식회
△김홍민회 △남동익회 △남유석회
△박 민회 △박범기회 △박봉준회
△박재서회 △배성진회 △박재익회
△백종윤회 △변병태회 △부일준회
△송경석회 △송재봉회 △송창현회
△심재근회 △인재영회 △인진열회
△임우현회 △이경간회 △연명준회
△오광국회 △오대근회 △유안식회
△이남규회 △이동환회 △이삼형회
△이성철회 △이은우회 △이은진회
△이종규회 △이종태회 △이주익회
△이원준회 △이창철회 △이태호회
△이태원회 △이필갑회 △정기봉회
△정우성회 △정재택회 △정종규회
△정태식회 △조대래회 △조석재회
△조정민회 △조한갑회 △최 천회
△최광순회 △최종욱회 △최우석회
△최정환회 △최준철회 △한경준회
△허영진회
◆농대 △고화근회 △김성우회
△김태규회 △민병선회 △변영복회
△박주현회 △박진규회 △서정연회
△서하수회 △송종익회 △산인호회
△오민영회 △우정식회 △유병삼회
△윤성환회 △이동찬회 △이성욱회
△이석봉회 △이윤곤회 △이원훈회
△이태원회 △이홍복회 △정영진회
△전병호회 △정용복회 △제상우회
△조용성회 △조종수회 △한진준회
△최영규회 △최재복회 △최재준회
△현종섭회 △황세성회
◆문리대 △강석범회 △김용준회
△김종열회 △김홍남회 △나준일회
△문희희회 △박상진회 △박우준회
△박주기회 △배성동회 △배정용회
△신진호회 △송석정회 △여우준회
△여정용회 △오봉환회 △오재환회
△우영희회 △이길준회 △이우훈회
△이홍준회 △정익성회 △조갑욱회
△천명섭회 △최유현회
◆미대 △박민익회 △김 정회
△김교식회 △김민지회 △노명지회
△서영숙회 △이성은회 △이성희회
△이정숙회 △이진민회 △장정현회
△현숙자회
◆법대 △김기환회 △김윤수회
△김정목회 △김종호회 △김형철회
△박기태회 △배성준회 △백운수회
△서계원회 △서상현회 △손관호회
△신 신회 △신상진회 △신영수회
△안승호회 △유우진회 △이강민회
△이광민회 △이병우회 △이수형회
△이영권회 △이영익회 △이홍구회
△이희복회 △조기진회 △조재선회
△한현수회 △홍성우회
◆사대 △강남욱회 △구본재회
△구혜진회 △권유성회 △김규민회
△김기운회 △김진기회 △김성환회
△김연성회 △김용선회 △김의수회
△김인숙회 △김태연회 △김효진회
△문태은회 △박길준회 △박병기회
△박영미회 △박우준회 △박재국회
△서국연회 △서미련회 △유남두회
△유상우회 △이근복회 △이민지회
△이발영회 △이승우회 △이우범회

△이종철회 △이현순회 △이희림회
△조병관회 △차원근회 △최재기회
△추연화회 △허 금회 △허낙수회
△황해복회
◆상대 △구명준회 △김성현회
△김정삼회 △김철현회 △민병윤회
△박종남회 △삼합섭회 △대우회
△이두석회 △이정권회 △이형조회
△김정순회 △정일재회 △조석조회
△최수환회 △최택민회
◆생리대 △원명섭회
◆수외대 △권기호회 △권승경회
△권준국회 △김병준회 △김용민회
△김학배회 △박재길회 △박진기회
△박홍범회 △양세관회 △양재선회
◆약대 △김용태회 △김정우회
△이홍자회 △정승혜회 △정민준회
△차진남회 △최인호회
◆음대 △송복각회 △송정민회
△신영재회 △안상준회 △이근우회
△장 숙회 △장원기회
◆외대 △김성관회 △김정봉회
△박인철회 △박정환회 △박진일회
△박현철회 △송성기회 △송현철회
△염진섭회 △오서환회 △오성철회
△오영성회 △유영환회 △이계희회
△이상동회 △이윤우회 △이정규회
△정광원회 △정동진회 △조성욱회
△조성원회
◆치대 △구지선회 △김우성회
△김진훈회 △명 훈회 △문영준회
△문승준회 △박승국회 △손일수회
△연대호회 △이관우회 △이재영회
△이정원회 △임용환회 △최준철회
◆대법원 △조현태회
◆보대원 △박일영회 △김준호회
△오세준회 △유우현회 △정경수회
◆한대원 △유영일회 △이재형회
△최희석회 △최유진회
◆한대원 △권형선회 △김학성회
△송장복회
◆AMP △곽순철회 △김정덕회
△박재수회 △박지현회 △김정일회
△유영태회 △우태명회 △이현섭회
△정용근회 △조차식회
◆AP △곽문연회 △성영원회
△이은성회 △장영규회 △전종택회
◆ACAD △명영남회 △삼영예회
△이강환회 △이진원회 △조철재회
◆ABP △이승열회 △홍우표회
◆SGS △이성오회
◆APC △박기정회 △조재현회
◆HPM △이민재회 △이영민회
◆AMPP △이삼철회
◆AIC △서택도회 △김홍근회
△송호표회 △이영호회 △최종원회
◆AMFFH △공하영회 △남정현회
◆GLP △김용태회 △고영성회
△류 근 회 △유영석회 △유우표회
△이기돈회 △이영수회 △정민태회

분 담 단

◆캐나다 밴쿠버지부 500\$

11 월 계: 34,944,702원
평생회비: 47,265,204원
입 회 비: 830,000원
총 계: 1,242,756,613원

장학발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54졸)

◆10억원

△곽영필(토목공학56-60)

△김은종(경제학59-63)

△김진숙(치의학56-60)

△김형주(토목공학46-50)

△홍성대(수학57-63)

◆2억원

△강신호(의학48-52)

(1차분)

◆1억원

△오응현(섬유공학67-71)

△최희정(섬유공학58-64)

◆5천만원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창원(자연과학67졸)

△이종현(경제학59-65)

△정재봉(사회사업60-64)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권혁웅(불어불문59-63)

△김기춘(법학58-62)

△김진규(기계공학61-66)

△남정현(건축학57-61)

△박진희(무역학76-80)

△안 훈(수의학53-57)

△윤세극(경제학45-51)

△윤영석(경제학58-64)

△이영필(항공공학66-71)

△조정훈(자연과학75-81)

△하영기(정치학44-48)

△황경로(AMP 11기)

◆5백만원

△강행연(토목공학61-65)

△백사익(채광학40-42)

◆2백만원

△박장우(경제학80-84)

△한규범(AMP 42기)

△허영호(전자공학71-75)

◆1백10만원

△원우원(행정학61-65)

△이정자(국어국문50졸)

◆1백만원

△김종표(외교학76-83)

△고 건(정치학56-60)

△김덕원(수의학50-54)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윤재(상학54-58)

△김민중(법학56-60)

△김정인(금속공학58-64)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익(법학55-60)

△김태원(제약학71-75)

△김홍중(수학74-78)

△문대원(경영학71-75)

△박성철(법학75-79)

△박영일(지리학74졸)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심장수(법학70-74)

△안치득(전자공학76-80)

△이두원(행정학74졸)

△이용우(공업교육64-68)

△장혜실(상학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장명희(의학65-71)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정길(행정학61-65)

△진홍일(외교학62-66)

◆50만원

△곽소진(신대원70졸)

△김재현(경제학69-73)

△김정우(상학67-71)

△신정택(AMP 48기)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인재(지질과학64-72)

△이창호(기계공학55-61)

△정삼명(행정학68-72)

△최동수(경영학65-70)

△최순철(치의학73-79)

△최현수(전기공학76졸)

△홍석주(경영학72-76)

◆30만원

△구분무(농공학62-66)

△김기락(의학68-7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응진(대학원49졸)

△박현상(법학76-80)

△서경식(행정학67-71)

△안재홍(관산학52-56)

△이종희(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5-64)

△이희근(관산학55-70)

△임수진(ACAD 56기)

△장성중(축산학58-64)

△조현승(경제학84-88)

△한동주(응용미술70-74)

◆25만원

△안태준(기계공학83-91)

◆20만원

△김남용(축산학53-57)

△김동원(행정학83-88)

△김영도(축산학68-75)

△김외식(상대전문46-49)

△김창근(법학51-55)

△김충실(의학66졸)

△김혜경(생물교육70-74)

△류종탁(외교학56-61)

△박병룡(경제학80-84)

△박윤희(공법학84-88)

△박찬정(건축학73-77)

△신우종원(법학41졸)

△신용일(교육심리53-57)

△심재업(상학63-71)

△양계현(경제학92-97)

△오규원(행정학65-69)

△유정복(행정학86-88)

△유형식(치의학59-65)

△이유희(가정학64-68)

△이형기(행정학70졸)

△이흥락(영어교육59-64)

△장기남(경제학61-68)

△정동성(농공학57-63)

△정용원(조선항공58졸)

△정유용(화학71일)

△정외조(수의학64-68)

△최갑선(조선공학65-69)

△최수강(건축학70-77)

△최희락(경제학57-61)

◆15만원

△조재홍(지리교육61-65)

◆12만원

△김정규(농화학84-88)

◆10만원

△강종우(법학57-62)

△권태진(기계공학71-75)

△김경중(사회교육73-77)

△김광원(대학원73-78)

△김광현(의학66-72)

△김금림(약학62-66)

△김길영(ABP 19기)

△김대중(경제학66-70)

△김대환(기약89-93)

△김동원(산업공학78-82)

△김명진(조경학78-84)

△김병정(전기공학90-94)

△김성은(ACAD 30기)

△김영태(응용미술59-66)

△김영호(잠사학65-69)

△김원기(상대전문46-50)

△김윤규(기계공학62-69)

△김재창(전자공학64-69)

△김정수(치의학54-58)

△김정호(치의학80-86)

△김종규(화학교육62-66)

△김종탁(산업공학74-80)

△김지선(화학교육68-72)

△김지호(항공우주92-96)

△김진수(농경제학70-77)

△김재중(치의학68-74)

△김준자(고교인류64-68)

△김영선(법학57-62)

△남해경(간호학79-83)

△노정석(경제학87-93)

△노정학(수학교육73-77)

△문성철(상학54-58)

△민병환(보대원75-77)

△박병규(의학74-80)

△박상민(화학교육70-74)

△박세나(기약90-94)

△박영일(경제학61-65)

△박우병(광산학52-56)

△박육근(경영학70-74)

△박재범(섬유교본84-92)

△박재형(의학66-72)

△박주원(외교학88-93)

△박준배(관대원77-79)

△배기홍(SCS 4기)

△사공일(상학58-64)

△서승준(상학53-57)

△소병철(법학78-82)

△심형보(섬유공학54-58)

△안수현(경영학77-81)

△안주희(사회교육73-77)

△안필준(ACAD 8기)

△오수국(영어영문72-74)

△오충용(농경제학60-65)

△오홍수(농경제학55-60)

△우성봉(농공학79-83)

△우영복(의학57-61)

△유동원(공업교육68-72)

△유부원(농업교육66-74)

△유광선(의학68-75)

△이갑관(상학61-68)

△이경덕(수학66-70)

△이경선(전기공학84-88)

△이계국(무역학62-67)

△이규재(농화학50-61)

△이대원(상학59-65)

△이동국(삼리학92-97)

△이병성(제약학74-78)

△이병희(공업교육63-67)

△이복환(체육교육70-77)

△이삼선(치의학86-90)

△이삼국(토목공학80-84)

△이선동(보대원86-88)

△이수호(AMP 55기)

△이우병(화학73-70)

△이재윤(치의학76-82)

△이재하(전자공학75-79)

△이재현(의학62-66)

△이정훈(AMP 54기)

△이규복(외교학79-83)

△이종삼(회화59-63)

△이창규(토목공학60-66)

△이철주(상학59-65)

△임규복(외교학79-83)

△임득호(동물학64-71)

△장만관(경제학56-61)

△장창순(지질과학53-57)

△장해문(회화69-73)

△장영환(미술학53일)

△장창영(건축학68-72)

△장국성(지질과학66-66)

△정규원(경제학65-70)

△정근화(물리교육63-70)

△정소영(상학51일)

△정수민(섬유공학70-74)

△정연운(재료공학93-00)

△정연관(화학90-94)

△정영삼(산업공학70-74)

△정운선(농가정학76-80)

△정인진(법학72-77)

△정해자(가정교육61-65)

△조용복(생물교육55-60)

△조유현(고교인류62-66)

△조주경(수학49일)

△조찬진(사회학70-74)

△지주원(외류학81-85)

△채병호(의학60일)

△채상식(국사학70-74)

△천용택(AMP 31기)

△최남재(영어영문84-89)

△최명자(간호학69-73)

△최종명(AMP 14기)

△최형성(경영학83-87)

△최형욱(기계공학75-82)

△추영일(법학61-65)

△한광재(법학60-64)

△한선구(경영학81-85)

△홍현식(치의학82-88)

△황동원(AMP 39기)

(2005년 10월 1일 부터

12월 28일까지 출연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